

---

# 중국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

---

중국지역본부

# 순서

- I. 2018년 중국지역본부 사업전략 ..... 1
- II. 정부 핵심정책 이행 방안
  - 1.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일대일로 연계 방안 / 23
  -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확대 방안 / 27
- III. 신시대 중국 정부 정책을 활용한 무역투자 확대 전략
  - 1. 신유통 혁명을 활용한 내수시장 진출지원 방안 / 40
  - 2. 한-중 FTA 활용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전략 / 45
- IV. 중국 4차 산업혁명 연계 협력 및 진출방안
  - 1. 중국의 4차산업 육성과 한-중 미래협력 방안 / 53
  - 2. '중국제조 2025' 연계 GP 사업 혁신방향 / 64

I

## 2018년 중국지역본부 사업전략

## 1. 한-중 경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

-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 '투자·정부' → '소비·민간부문'
  - '78년 개혁·개방 이후 수출·투자 중심의 성장전략 추진
    - '02년 WTO 가입 후 '수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투자' 성장 주도 → '02~11년 연평균 10.6%의 고성장, 경제규모와 글로벌 영향력 확대
    - 수출·투자 중심 성장전략은 소득기반 약화, 과잉투자, 환경오염 등 초래
  - (성장패러다임 전환) 중국의 성장동력 전환과정에서 수출경쟁력 약화 및 수입구조 변화
    -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및 수출 둔화
    - 임금 상승 등으로 소비기반이 확대되어 소비재 수입 확대
    - 가공무역 비중 감소 등으로 중간재 수입 감소, 중·저기술 자본재의 수입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고기술 제품의 수입비중은 상승
- 한중 경제 관계는 양국 수교('92년) 이후 3단계로 심화·발전
  - ('92~'98년) 한중간 분업생산 관계 (한중 수교부터 아시아 금융위기까지)
 

\* 단순 수출·투자진출

    - (목표) (韓)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 (中) 한국기업 투자유치
    - (주체·지역) 한국의 노동집약 중소기업의 동북3성·산둥성 진출
    - (방향) 한국의 대중국 투자 및 수출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
    - (제도) 양국간 체결한 무역투자 협정 외 공통 무역규범 부재
  - ('01~'08년) 한중 경제관계 본격 확대·심화 (WTO 가입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 규모와 범위의 확대

    - (목표) (韓) 대중 가공무역, 내수 개척, (中)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과 학습 축적
    - (주체·지역) 한국 대기업, 진출업종 다각화(제조업+서비스업), 진출지역의 중국의 연해지역으로 확대(징진지(수도권), 화동, 화남지역)
    - (제도) 글로벌 규범, 즉 WTO 가입국(상호 최혜국대우(MFN) 시대)

○ ('12~현재) 중국 '뉴 노멀' 진입 이후 시장통합 개시

\* 진출 형태의 다각화·양방향화, 조정시기

- (목표) 한국기업의 가공무역, 내수 개척, 밸류체인 확대 및 다각화
- (주체·지역) 진출지역의 전국화, 제조업 → 서비스업 등 업종 다각화
- (방향) 대중진출(단방향) → 상호진출(쌍방향) 전환
- (제도) 최혜국대우(WTO) 단계 → 시장통합(FTA) 단계 진입
  - \* 관세 철폐, 서비스·투자 개방, 진전된(WTO+) 무역규범, 산업·지방협력 강화 등
- (국제경제) 글로벌 침체와 질서 재편 속 자국우선주의와 '자유무역' 공존
  - \* 미국 자국우선주의 표방, 중국 자유무역 주도 의지 표명

## 2. 한-중 경제협력 재도약 방향

### □ (시장 진출) 중국 경제(산업, 시장)의 발전성과와 주요 정책방향에 맞춘 중국시장 진출전략 재정립 필요

- (산업) 중국의 '신산업'을 블루오션으로 삼아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 진출방안 마련
- (시장) 신산업의 전방(前方) 산업은 물론 고품질 소비재, 서비스, 더 나아가 창업시장을 겨냥한 업종 및 제품 개발과 진출

### □ (한중 협력) 양국의 정책의 접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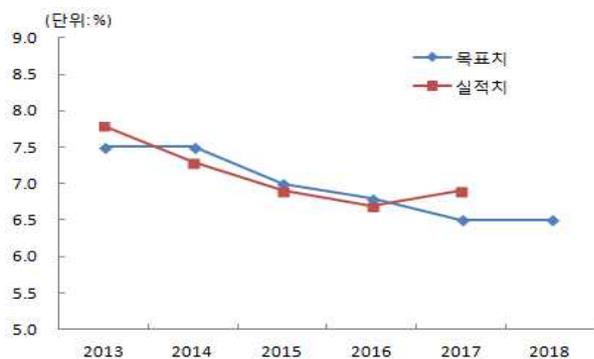
- (정책 협력) 일대일로와 신북방협력·신남방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양국 핵심 정책의 접점을 찾아 협력 방식과 대상을 발굴, 추진
- (분야별 협력) 산업, 이슈, 지방도시 간 협력강화와 모델발굴
  - 4차산업, '스마트 제조' 등 분야 : 공동기술개발/창업 추진
  - 비관세장벽(통관·인증·표준 등), 중소기업, 금융분야 협력 강화
  - 지방도시간 협력 추진 등
- (통상 협상) 한-중 FTA 이행 및 후속협상, 다자간 통상협상 공조

### 1. 시진핑 2기 집권, 경제정책 변화의 방향성

□ (정책) 뉴 노멀(新常态) 지속, '온중구진(稳中求進, 안정 속 경제발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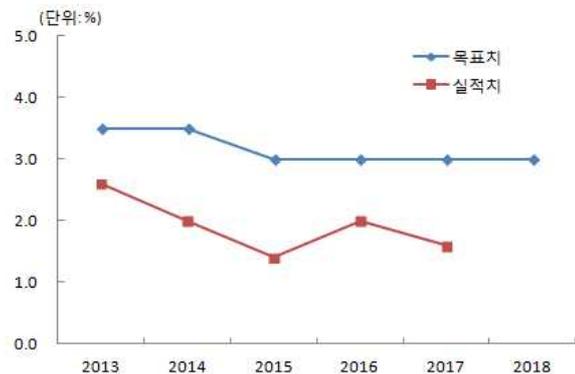
- 시진핑 집권 2기('18.3월)에 따라 '안정적 중고속 성장(6.5% 내외)', 적극 재정·안정적 경제운용, 국제수지 균형 등 정책 제시

< 시진핑 집권기 GDP 성장률 추이 >



자료 : 「정부업무보고」 CEIC DB.

< 시진핑 집권기 CPI 증가율 추이 >



자료 : 「정부업무보고」 CEIC DB.

□ (미래성장) 신성장 분야 육성과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의 질(質) 제고

- 빅데이터, AI, 의료·양로·교육·문화·체육 등 분야 첨단화·정보화 추진
- 혁신 스타트업 창업 지원, 혁신 플랫폼 구축, 공유경제 발전 지원

□ (대외경제) 대외개방 확대 및 G2로서 국제 영향력 강화 지속 추진

□ (개방화) 투자 개방\* 확대, 절차 간소화, 내국민대우 확대 재확인

\* 일반 제조업 전면 개방, 전신·의료·교육·양로·신에너지차 개방 확대 등

□ (무역편리화) 통관 간소화, 서비스무역·전자상거래 육성, 가공무역의 중서부 지역 이전, 수입확대\* 및 수입관세 인하 추진

- 특히, 적극적 개방확대 방침\*\* 강조(시주석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 '18.4.10)

\* 중국 상무부 제1회 중국국제수입상품박람회 개최('18.11.5-10, 상하이)

\*\* 금융·자동차 등 투자제한 대폭 완화, 중국내 투자환경 개선, 지적권 보호,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등 수입 확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가속화 등

□ (경제협력)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대외수요 확대 및 성장동력 확보

- 일대일로\*와 신남방·신북방 정책 연계로 프로젝트 참여기회 확대
  - \* 일대일로 해외도급 프로젝트 규모 : USD 644억('14년) → USD 855억('17년)
- 중국 내륙시장 및 연선국가 내 교통·인프라 건설 사업, 교역·투자·서비스, 에너지 협력, 환경기술 등 민관협력 분야 진출기회로 활용

< 일대일로 추진체계도 >



**사업 방향**

중국을 통한 제조·기술협력 기반 제3국 실크로드 개척 지원, AIIB, ADB 금융투자 활용 일대일로 연선국가 프로젝트 수주 지원

□ (산업구조 고도화) 4차 산업혁명 유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로드맵 제시

- (고도화) 제조대국에서 기술주도형 스마트제조 강국으로 성장 도모
  - (중국제조 2025) 중국 정부의 중장기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정책
    - \* '25년까지 독일·일본 수준, '35년까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고 제조강국 목표
  - (인터넷 플러스) 인터넷과 제조업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질적 업그레이드
- (기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고도화 정책에 따라 한국의 고부가가치·고기술품·소재 및 신산업 분야 첨단기술\* 수요 확대
  - \* 수요확대 분야 : 첨단장비, 반도체,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항공 엔진, 산업용 로봇, 가스터빈, 스마트제조 등
- (우려) 中 교역구조 업그레이드에 따라 'China Inside' 가속화
  - 中수출, 소비재→중간재·자본재 / 低기술→中·高기술 업그레이드
    - \* 중국 소비재 수출 : 42.3%(’01)→ 29.2%(’16) / 중국 중간재 수출 : 34.9%(’01)→ 41.7%(’16)



**사업 방향**

GVC 진입 고도화 전략을 통한 Made with China 전략 업그레이드, 신에너지, IoT, 인공지능,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협력모델 창출

## 2. 우리 정부의 대중국 경제협력 원칙과 방향

### □ 미래지향적인 한-중 경제협력 방향 제시

\* '17.12월, 한-중 비즈니스포럼

3대 기본원칙	
①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② 경제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 ③ 양국민의 우호정서를 통한 사람 중심 협력	

### □ 8대 협력방향 및 주요 추진사업

협력 방향	주요 추진사업
제도적 기반 구축	· 한중 FTA 이행 점검, 검역 및 통관 협력, 비관세 장벽 해소 협력 등 · 한중 서비스투자 협상 개시 MOU 체결 · 정부 부처간 협의 채널, 산업별(반도체, 철강) 민간 협의채널 가동
교역의 질적 성장 도모	· 교역분야 다양화 및 디지털 무역 확대 · 프리미엄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 협력 확대 · 상호 온라인 플랫폼 입점 확대
미래 신산업 협력 강화	· 4차 산업시대의 관심분야에서 협력 확대 · IoT, 드론, 인공지능, 전기차 등 신산업 협력 확대 · 신세대(5G) 통신 운용 협력, 베이징 동계올림픽 지원
벤처·창업분야 협력 확대	· 한국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전략과 중국 신창타이 시대에서의 혁신 스타트업 창업 정책(大衆創業, 萬衆創新) 연계 · 벤처투자 공동기금 조성(1억 달러)
에너지 분야 협력	·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가능성 ·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신기술 개발, 에너지 인프라 건설 협력 · 신에너지 분야 협력 MOU 체결
환경 분야 협력	· 중국 생태문명 건설,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환경협력 강화 · 미세먼지, 대기정화 및 저감기술 협력, 대가수질폐기물 처리, 청정 생산공정을 위한 생태 산업단지 조성 협력 강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	· 일대일로 건설 구상과 한국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의 연계 · 제3국 공동진출, 제3국 투자기금을 통해 지원(수단 신공항, 두바이 팜 게이트웨이 건설, 에콰도르 정유공장 건설 공동 진출 경험) · AIIB, ADB를 통한 인프라 건설 참여
사람 중심의 민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 서울-베이징 1일 생활권 · 중풍(中風)과 한류(韓流) 공유를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 문화와 비즈니스의 결합 · 상호 많은 유학생(재중 7만 명의 한국 유학생) 보유 → 미래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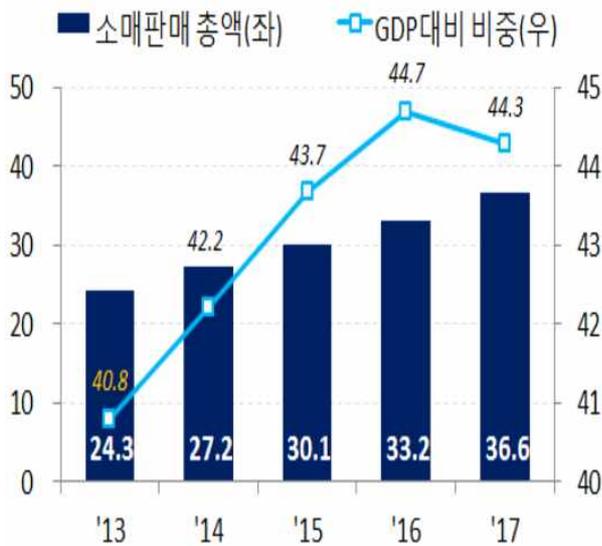
\* 자료 : KIEP

### 3. 시장환경 변화

#### □ (소비시장) 소비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강화와 내수시장 확대

- 온라인 기반의 소비 확대로 전체 소매판매도 빠른 성장세 시현
  - \* 소매판매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GDP 총액 대비 44.3%를 달성
- 인터넷, 모바일의 보급과 함께 온라인 쇼핑규모도 '17년 30.7% 성장
  - \* 알리바바 광군절 1일 매출액은 전년대비 39.4% 성장한 1,682억 위안(약 29조원) 기록

< 중국 소매 판매액 추이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HRI

< 중국 온라인쇼핑 현황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알리바바, HRI

- 중산층 증가 및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프리미엄 소비재 수요와 헬스, 뷰티, 고급식품 및 관련 서비스 수요 증가
- 다양한 소비트렌드 및 채널 생성에 따른 소비시장 진입기회 확대
  - 모바일 경제, 他(남성)·她(여성) 경제, 왕홍(網紅) 경제 등 신규 소비트렌드 발전에 따라 소비 주체의 세분화, 소비 채널의 플랫폼화 가속



#### 사업 방향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온.오프라인 전문 유통채널과의 협력 지속, 왕홍 마케팅, O2O 플랫폼, K-뷰티, 패션, 푸드 소비재 및 관련 마케팅 서비스 공급채널 확보를 통한 소비직결 마케팅 추진 강화

- (한중FTA) 관세율 인하, 후속협상에 따른 무역장벽 완화 및 서비스 시장 확대
  - FTA 4년차에 따른 추가관세 인하 및 누적인하 효과로 활용률 제고
    - \* FTA 수혜품목의 수출 증가율(19.2%)이 비수혜품목의 수출 증가율(12.6%)을 상회하며 FTA가 수출 증가에 기여, 관세인하폭이 커질수록 기여도는 높아질 전망
    - \*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17. 9월 기준 42.5%로 발효 2년차('16년, 33.9%) 대비 8.6% 증가하여 안정적으로 정착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개시('18.3월)로 관광, 문화·콘텐츠, 게임, 금융, 법률, 의료 등 경쟁력 있는 분야의 규제(비관세 장벽) 완화 기대
  - 중국 경제는 급속히 '중국형 서비스 중심경제'로 재편 중, 고기술 기반 서비스산업의 비중 급증
    - \* 중국 GDP 내 3차 산업 비중(%) : 45.3('12)→51.6('17), 2차 산업 비중 45.3('12)→40.5('17)
    - \* '14년 이후 GDP 비중 급증 서비스업종 : 금융, 부동산, 공공관리, 교육, 정보·소프트웨어, 임대·상업서비스, 위생·사회보장, 문화·체육·오락 등



**사업  
방향**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 따른 관광, 의료, 문화콘텐츠, 금융 등 전문서비스 분야 진출 로드맵 제시 및 기업지원 강화

## 4. 리스크 관리

- 한-중 관계 심화과정에서 각종 형태의 리스크 발생
  - (국가 리스크)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 관련 정치·경제·사회 리스크 확대
  - (기업 리스크) 정부 정책·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잠재
  - (기관 리스크) 유관기관 법적 지위·운영 관련 리스크 상시화
- 기 발생 리스크 조기 해결 및 잠재 리스크 예방 노력
  - 법적지위·운영 관련 문제 조속 해결 노력
  - 무역투자 정책·시장 리스크 예측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마련
  - 리스크 관리 정보 생산·전파 강화
  - 네트워킹 강화 노력 : 『중국 VIP 인명록』 최신판 발간

비전

한-중 新경제협력 시대  
중국 시장진출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2018년  
목표

수출 1,500억 달러, 외국인투자 25억 달러 달성 선도

세부목표

추진과제

시장 진출방식  
고도화

- ◆ 중국 미래혁신 '신산업' 분야 협력 및 진출지원
- ◆ GVC 변화에 대응한 한중 협력모델 고도화
- ◆ 고급소비재 중심 유통 플랫폼 사업 고도화

글로벌 일자리  
창출

- ◆ 현지 수요와 연계한 청년취업 지원
- ◆ 일자리 창출 중심 전략적 투자유치·진출 기능 강화
- ◆ 혁신 스타트업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수출시장과  
품목 다변화

- ◆ 한-중 FTA 수혜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 강화
- ◆ 협업을 통한 미개척시장(2-3선 도시) 진출 지원
- ◆ 중국형 프로젝트시장 진출 지원

경제협력 기회  
다각화

- ◆ 일대일로와 신남방·신북방 정책 연계 사업발굴
- ◆ 도시간 협력지원 강화로 호혜적 협력모델 구축
- ◆ 대북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협력 기회 발굴

## ① 중국 미래혁신 '신산업' 분야 협력 및 진출지원

## □ 추진방향

- 중국정부 육성 신성장 산업분야에 대한 '협력기회' 발굴
  - 빅데이터, IoT, AI, 로봇, 전기차 등 4차 산업 기술·투자 협력
- 단순 수출지원을 넘어 신성장 산업의 새로운 밸류체인 진입 지원
  - 기존 GVC 진입모델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신성장 산업의 중국식 GVC 초기 형성과정에 진입해 중장기 기술협력 구축

## □ 추진체계

- 4차 산업을 선도하는 한-중 공동 협력체계 구축
  - 빅데이터, IT기술, 로봇, 신에너지차, AI 등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교류, 공동투자, R&D 공동연구 지원
-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지원 방식보다는 '기술투자협력' 지원 방식으로 협력모델을 전환하여, 밸류체인 초기진입 지원

## 《 추진체계 개선 》

As-Is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부품 중심의 대중수출 증대</li> <li>· 자동차, 모바일 등 국한된 산업분야</li> <li>· 미래산업 분야 기업육성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방적 수출보다 상호협력</li> <li>· 4차 산업 및 융복합 산업으로 확대</li> <li>· 미래산업 분야 협력으로 공동발전</li> </ul>

## □ 사업계획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신에너지차	중국 미래자동차 GP사업	6월(예정)/상하이
	FMC 전기차 부품소싱 상담회	11월/난징
스마트제조	한-중 스마트제조 콜라보레이션 플라자	9월/난징
로봇	한-중 로봇산업 Strategic Alliance	9월/베이징
기술교류	한중 기술교역 로드쇼	11월/시안
	혁신기술 무역투자상담회	11월/청두
ICT	K-Global China 2018	12월/선전

## 2 GVC 변화에 대응한 한중 협력모델 고도화

### □ 추진방향

- 자본투자와 상품·기술 수출의 융합화를 통한 중장기 파트너십 구축
  - 중국의 시장변화로 단순한 상품 또는 기술의 수출방식 한계 도달
- 일방적 수출을 통한 수출규모 확대가 아닌 한-중 협력모델 고도화
  - 한-중 산업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협력분야 도출, 지원 강화

### □ 추진체계

- 현지 타겟기업 기술수요 발굴 및 매칭을 위한 협력 플랫폼 구축
  - 무역관은 현지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기술협력 코디네이터 기능 수행
- 매칭 정확도 제고를 위한 본사-지역본부-무역관간 협력체계 마련
  - 본사 및 무역관의 산업 DB 및 고객사 활용, 중국 기업의 수요에 맞는 한국 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 □ 사업계획

- (본부협업) 중국 부품소재 수출상담회 (4월/베이징)
  - (참가) BAIC·BYTON(전기차), VIVO(휴대폰), PIOTECH(반도체) 등 22개사
  - (내용) 산업포럼 + 상담회(소싱·기술협력·투자유치 등) 융복합 진행
  - \* (성과) R사 스카리봇 OEM 공급 프로젝트, I사 200만불 투자유치 프로젝트 진행 중
- (글로벌) ChangAn Ford-Korea Autoparts Week 2018 (5월/충칭)
  - 중국 기업 수요와 투자진출 한국계 부품기업의 판로 다각화 수요간 매칭
  - Powertrain, Chassis, EPE 등 5개 파트별 관련기업 27개사 납품 상담
- 주요 분야별 타겟 글로벌 기업 협업사업

분야	협력기업	시기/장소
자동차 · 전기차	이치그룹 · 화천그룹	8월, 9월/선양
	상하이, 지리, 볼보 등	6월/상하이
	BYD	하반기/선전
조선	후동중화조선, 칭다오베이하이조선, 따양조선, 중찬청시조선, 텐진신강조선 등	6월/다렌
IT · 전기전자	VIVO, OPPO, ZTE, Foxconn	하반기/선전

### 3 고급소비재 중심 유통 플랫폼 사업 고도화

#### □ 추진방향

- 화장품, 패션 등 제품군별 특성에 맞는 적격 유통망 발굴·공유
- 고급 소비재 우수 품목군 발굴 확대 및 중점 육성 지원
  - aT센터 등 각 분야별 전문 지원기관과 협력사업 확대

#### □ 추진체계

- 품목별 수출기업 DB 및 유통망 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 바우처 프로그램 활용, 기업별 상황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인근지 무역관간 협력사업 확대
  - 화장품 등 특정 품목 행사 시 인근지 무역관 바이어 초청 협력사업 추진

#### □ 사업계획

- (상품전) 지난(濟南) 한국우수상품박람회 (7월/칭다오)
  - \* 프리미엄 소비재, 한류 콘텐츠 등 143개사 참가, 바이어 1,500명 초청, 지방정부 유관기관 협업
  - \* 융복합 마케팅 : 기업 브랜드쇼, 투자유체R, 한중 e-commerce 포럼, 왕홍 판촉행사 등
- (온라인)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지원 (연중/항저우)
  - \* 보세 역직구 온라인 시장진출 희망기업 대상 “입점▷물류▷판촉▷결제” 원스톱 지원
  - \* 왕이 카오리(역직구 1위) 한국관, 하오이고우(절강TV 홈쇼핑) 한국 홈쇼핑 히트제품 판촉주간 등
- (협업) 충청 증진공 정책매장 연계 구매상담회 (6월 예정/충청)
  - \* 서부지역 최대 한국제품 정품매장(212개社, 1,600제품 정식통관 판매) 활용 협업사업 추진
- (O2O) 동북 3성 O2O 유통망 플랫폼 입점 소싱 사업 (3월, 8월/선양)
  - \* (3월) 입점/소싱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8월) 플랫폼 오픈연계 전시상담회 개최

#### [참고] 대형 유통망 연계 온·오프라인 협력사업

분야	사업명	시기/장소
소비재 전반	타오바오 파워셀러 한국기업 입점상담회 및 왕홍생방송	3월/상하이
	한국관 활용 플랫폼 사전입점 및 왕홍 O2O 판촉전	5월,10월/항저우
	티몰 온라인플랫폼 및 O2O관 입점 및 판촉 지원	6월,9월/상하이
	유력 O2O 유통망 활용 신소비시장 진출 확대 사업	6-8월/난징
	JD.COM, 우메이 등 대형유통망과 핀포인트 상담회	9월/베이징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활용 수출지원 사업	9월/선양
화장품	한국 화장품 A to Z 마케팅 및 입점지원 사업	9월/광저우
영유아제품	‘하이즈왕’ 연계 중국 유아용품 시장 진출 지원사업	10월/난징

### 1 현지 수요와 연계한 청년취업 지원

#### □ 추진방향

- (제도) 유학생 현지 취업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 노력
  - 대사관 협업 및 공조체계 구축, 인턴채용 박람회 등 지원 강화
  - \* 중국 내 외국인 취업허가제 실시로 학부 졸업생의 현지 취업 애로 발생
- (플랫폼 구축) 현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 협력기반 구축
  - 유학생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취업컨설팅 기회 확대
- (홍보·활용) 취업지원 플랫폼 홍보와 양질의 일자리 발굴 노력 강화
  - 전문기업과의 협력, 취업정보 공유, 핀포인트식 현지취업 지원

#### □ 사업계획

- (박람회) 유학생 취업·인턴 박람회 (6월/세이징)
  - \* 삼성 등 한중기업 44개사, 유학생 약 350명, 주중 대사관, 한국상회 등 유관기관 협업
- (핀포인트) 상하이 화동지역 핀포인트 채용상담워크 (6월/상하이)
  - \* 구인기업/구직자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1:1 채용상담(기업 8개사, 구직자 약 80명)
- (온라인) 중화권 온라인 Job Fair (10월/홍콩)
  - \* 취업비자 문제로 중국대학 졸업 후 구직이 어려운 유학생 대상 취업기회 제공
- 주요사업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본부협업	진출기업 1사 1청년 채용운동 전개	연중/전무역관
전문분야	법률/회계/컨설팅/호텔서비스 분야 취업설명회	4월/홍콩
	금융분야 K-Move 아카데미 공동 개최	9월/홍콩
지역특화	광동성 한인 유학생 취업 상담회	5월/광저우
	상하이·화동지역 청년취업아카데미	5월/상하이
	선양유학생 취업 박람회	5월/선양
	상하이·화동지역 핀포인트 채용상담워크	6월/상하이
	텐진 유학생 취업 설명회	6월/텐진
	한중 청년창업 토크쇼	7월/칭다오
	투자진출기업 취업수요 매칭 상담회	7월/칭다오

## ② 일자리 창출 중심 전략적 투자유치 · 진출 기능 강화

### □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투자유치) 對韓 투자(예정) 기업과의 상시 네트워크 강화·유지로 일자리 창출 효과 창출

\* (성공사례) G社(반도체) : 한국 자회사 증액투자 연계 150명 고용계획 확인  
H社(기계) : 한국공장 증설 연계 300명 추가 고용계획 확인

- (투자유치) 중국 내 외국 선진기술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우수 기술 보유 한국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중국자본 유치
  - 고용창출 효과가 큰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유치 수요를 선제적으로 지원

- (투자진출) 현지 진출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확대
  - 전 무역관에서 1사 1청년 운동에 참여, 일자리 창출 업무 수행
  - 진출기업 한국인 인턴 채용지원 확대 → 先인턴 後채용 유도
  - 현지 진출기업의 한국인 지역전문가 육성 수요 발굴·적극 대응

\* (성공사례) M사 R&D센터 한국인 이공계 유학생 채용 협력('17.6, 6명 채용)

- (국내복귀) 국내복귀 기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사업계획

- (투자유치) 2018 릴레이 국가 IR in China (5-11월 / 항저우등 5개 무역관)

사업명	분야	시기/장소
저장(浙江) 투자무역박람회 홍보관	전기전자, 문화콘텐츠	5월/항저우
한중기술협력 투자유치 설명회	IT,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9월/난징
한-텐진경제협력포럼 투자IR	재무·핀테크, 스타트업	10월/텐진
4차산업혁명 핵심산업 투자유치 상담회	로봇, 인공지능, IoT	11월/선전
K-ICT 투자유치 상담회	핀테크, 로봇, AI·IoT, AR/VR	11월/청두

- (투자진출) 현지 진출기업 협력사업
  - M사 R&D센터 이공계 유학생 채용지원 사업(5월/베이징)
  - 유학생 취업·인턴 박람회(6.7/베이징)

- (국내복귀) 현지 자동차 부품업체 국내복귀 지원(2월/베이징)

\* (성공사례)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18년 복귀한 S사는 30명 이상 채용 계획

### 3 혁신 스타트업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 □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혁신 스타트업의 무역·투자·기술·인적 교류 지원 플랫폼 구축
  -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 및 진출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무역관 소재지역별 특성에 맞춘 스타트업 진출지원 기능 수행
  - 중국 내수시장 진출, 투자유치, 기술교류, 생산비용 절감 등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

#### 한국 스타트업 중국시장 진출 여건

- (中 창업환경) 중국 정부는 중속성장의 돌파구로 창업육성정책 추진, 스타트업의 펀딩 및 사업화 여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
  - ☞ 중국 내 스타트업 투자, 해외 스타트업과의 현지 합작법인 설립, 제조 파트너십 구축 등 협력사업 확대 수요 및 희망 자본 풍부
- (韓 스타트업) 중국진출 수요 대비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은 소수
  - ☞ 현지 법인설립, 시장조사/분석, 제품/서비스 현지화, 파트너링 유망 기업 발굴, 마케팅, 투자유치 등 체계적인 현지진출 시스템 구축 및 지원 필요

#### □ 사업계획

- (ICT) K-Global China 2018 (12월/선전)
  - 구성 : 전시 상담회\* + 스타트업 IR + 한중 ICT 포럼
  - \* 전시상담회 구성 : 모바일/스마트팩토리/IoT/차세대정보기술(IT)/AR·VR 등
-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 투자유치 상담회 (8월/선전)
  - 구성 : (AI, IoT분야) 투자 IR + 1:1 투자유치 상담회
- (Hi-Tech) 한중 하이테크 스타트업 파트너십 ('18.11월/난징)
  - 구성 : 스타트업 피칭, 바이어·투자자 1:1 미팅 등
- (협업) Dreamtown Korean Startup Day (하반기/항저우)
  - 중국 대표 혁신기업 Alibaba 벤치마킹 및 협력기회 창출, 저장성 창업지원체계 활용을 통한 한국 스타트업 중국 진출기회 모색
  - 구성 : 입주보육 바이어 매칭, 투자IR 참가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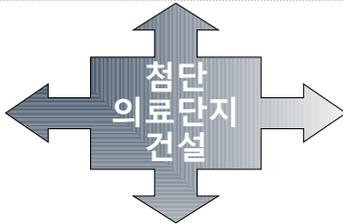
### 1 한-중 FTA 수혜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 강화

#### □ 추진방향

- 한-중 FTA의 단계별 관세율 인하 수혜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
  -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한 설명회 및 마케팅 사업 지원 확대
- FTA 서비스투자 협상 수혜 예상분야 지원체계 마련
  - 의료, 문화컨텐츠, 관광서비스 등 서비스분야 투자교류 확대

#### □ 추진체계

- 정보제공 중심의 FTA 활용지원센터 기능을 마케팅 활동과 적극 연계하여 한-중 FTA 지원 '종합 플랫폼' 역할 수행
  - 한-중 FTA 활용도 제고 및 FTA 활용 성공사례 창출 및 전파
- 중국진출 유망 서비스 분야 업종별 진출 수요조사 및 중국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 중국 서비스시장 조기 진입 지원

[성공사례] W대학병원 보건의료 프로젝트 지원사업		
 <b>열달그룹</b> Fortune 400, 중국 106위		<b>W대학병원</b> 첨단 의료서비스
지원내용		
중국 의료시장 환경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	협력방식
▷ 의료인프라 부족 ▷ 첨단 의료서비스 수요	▷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시장조사 및 파트너발굴	▷ (단기) 표준 의료서비스 정착 ▷ (중장기) 생애 전주기 관리형 종합의료시스템 구축

#### □ 사업계획

- (의료) 의료서비스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 강화
  - 상급종합병원의 합자투자 및 치과·성형·피부미용 병원의 CSR 지원  
\* Y의료원-신화진(新華錦)그룹 합자 청다오 Y의료원 개원('18.7월)
- (문화) 문화콘텐츠 한-중 공동 제작·투자 확대 지원
  - 중국 애니웹툰 사절단(6.5/6.7, 항저우/베이징)
- (프랜차이즈) 외국계 프랜차이즈 수요 증가에 따른 진출 강화
  - \* 프랜차이즈 사절단(4월, 우한), 프랜차이즈 박람회(5월, 베이징), 프랜차이즈 로드쇼(9월, 샤먼)

## ② 협업을 통한 미개척시장(2-3선 도시) 진출 지원

### □ 추진방향

- 중국시장 세분화에 따라 신시장(2-3선 도시) 개척 강화
  - 연해·대도시 중심 진출지원 → 미개척시장 진출지원으로 다각화
  - 미개척시장을 선점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성일관(一省一館)' 실현
- 내륙 소비시장 급성장 및 일대일로 등 정책 수혜시장 타겟화
  - 물류유통 플랫폼 확충을 통한 중서부 소비시장 공략 지원
  - 시안, 청두, 충칭, 쿤밍 등 일대일로 핵심도시 협력사업 강화

### □ 추진체계

#### 【목표】 미개척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시장선점효과 극대화

- (내부) 연해지역 무역관과 내륙지역 무역관 간 협업 강화
  - 연해지역·대도시 중심 대형 유통플랫폼을 발굴·협력하여, 2-3선 도시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 \* (사례) 주요 소비재 내륙시장 신시장 개척 상담회('17.11월)
- (외부) '기관 간 칸막이' 제거, 협업을 통한 내륙시장 개척
  - 중진공 정책매장(충칭) 입점기업에 대한 패키지형 마케팅 지원

#### 중진공 충칭 정책매장

- ▶ 위치 및 규모 : 충칭 대형 쇼핑몰 용호시대(龍湖時代), 652 m<sup>2</sup>
- ▶ 입점기업 : 중소기업 212개사, 1,600여개 제품 전시 및 판매

- (지원체계) 2-3선 도시 성시정부에 '한중협력 Desk' 설치
  - 도시별 시장특성 및 수요 파악, 중장기 호혜적 사업 발굴·운영
  - 사업수요 및 무역관 개설 타당성 검토 후 Desk의 무역관 전환

### □ 사업계획

- (협업) '중진공 정책매장' 활용 패키지형 마케팅 사업 추진
  - 중진공 정책매장 활용 구매상담회(6월 예정/충칭)
  - 내륙지역 마케팅 지원 패키지 사업(6월 예정/창사)
- (CSR) 내륙도시 성시정부 협력 CSR 사업 추진
  - 농촌지역 환영오염 처리 CSR 연계 마케팅(11월/창사)

### 3 중국형 프로젝트시장 진출 지원

#### □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환경, 도시화, ICT 인프라 등 중국 정부가 당면한 현안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를 종합 지원하는 협력 플랫폼 구축
  - 지방단위로 추진되는 프로젝트 발굴·참여를 위해 지방정부 관련 부서와의 협력관계 강화 필요(지방정부와의 협력 MOU체결 등)
- 중국 중앙정부의 중점 정책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주 지원
  - 일대일로 정책 관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중국 숭안신구 스마트 시티 건설 프로젝트 등

#### □ 사업계획

- (내륙) 중국 서부 내륙 환경보호로드쇼 (11월/시안)
  - 대기, 수질, 토양오염 개선수요 확대, 환경보호세, 오염배출허가제 등 환경보호 관리강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진출협력 기회 모색

\* (성공사례) '17년 환경보호 로드쇼를 통해, SEPG(섬서환보그룹)프로젝트 중 오염 배출시설 세정(G사), 쓰레기처리 시설(C사) 분야 협력 추진 중

- (포럼) 한-중 환경 협력 포럼 (11월/샤먼)
  - 환경기술 설명회 및 후속 상담회, 프로젝트 현장 방문 등

\* 토양/수질오염에 대한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으로 관련 산업수요 급증  
\* 중국측 수요자(지방정부/ 발주처 및 환경협회)와 공동 사업 추진

- (협업) 한-중 내륙 환경협력 플라자 (하반기 / 정저우·우한·창사 협업)
- 주요 사업

분야	사업명	시기/장소
환경	환경바이어 초청 핀포인트 상담회	8월/우한
	서부 내륙 환경프로젝트 진출 로드쇼	11월/청두·시안
	중국 환경시장 진출 상담회 개최	9월/광저우
	C社 폐기물처리 프로젝트 수주지원	연중/난징
	서울시 환경보호 사절단	5월/베이징·창사

### 1 일대일로와 신남방·신북방 정책 연계 사업 발굴

#### □ 추진방향

- (연계성)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실현방향과 일대일로 정책의 주요 경제회랑 추진방향의 연계성에 중점을 둔 사업발굴 및 운영
- (제3국 진출) 중국 기업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일대일로 연선국 68개국에 대한 무역·투자 프로젝트 수주 확대

일대일로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 수요 확대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정사업으로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로 구분</li> <li>▶ 6대 경제회랑(물류망 연결노선)을 통해 AIIB, ADB 등 국제기구 및 중국기업의 연선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li> <li>▶ 68개 국가와 협정 (270여개 프로젝트)</li> <li>▶ 슬로건 : ① 정책소통, ② 인프라 연결, ③ 무역 원활화, ④ 자금융통, ⑤ 민심상통</li> </ul>	

#### □ 추진체계

- (수출)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연선국가에 대한 수출모델 창출
  - 'Made with China'를 통해 동남아, CIS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수출확대
    - \* (정저우 국제허블건설계획) '13년 7월 개시한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시, 폴란드, 독일(함부르크) 연결 컨테이너 철도 운송 1,000편 달성('18년 1월)
- (프로젝트) 일대일로 핵심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중국의 제3국에 대한 프로젝트 공동참여 지원
  - 주요 도시(시안, 청두, 쿤밍 등) 및 국제기구(AIIB, ADB) 등과 협력해 연선국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등 참여 지원

#### □ 사업계획

- 광동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박람회(10월/광저우)
- 동남아본부와의 GP 사업협력(6월 예정)을 통해 GVC 지원체계 다각화

## ② 도시간 협력지원 강화로 호혜적 협력모델 구축

### □ 추진방향

-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간 협력 지원
  - 염성시(강소성), 혜주시(광둥성), 연태시(산둥성)와 국내 주요 도시간 협력의제 발굴 및 지원 강화
- 양국 주요 도시의 협력수요 발굴 및 지원 확대
  - 문화교류, 경제무역, 공동투자 확대 등을 통한 협력 강화
  - 한-중 FTA의 축소판 실행모델로 '도시간 FTA' 활성화 방안 검토

### □ 추진체계

- 한-중 산업협력단지(염성, 혜주, 연태) 지원 T/F 구성
  - 공관 및 유관기관, 본부, 협력단지 소재지 무역관 등으로 구성된 한-중 산업 협력단지 T/F 구성으로 한중경제 협력 지원
- 중국 주요 성시와 국내 주요 도시 간 무역·투자, 환경, 문화 등 互惠型 경제협력 사업 발굴 및 지원
  - 도시간 협력사업의 정례화를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비즈니스 정서 조성 및 호혜형 사업 추진 토대 마련

### □ 사업계획

- (경제) 양국 정부간 협력사업 추진시 무역투자 상담회, 문화·학술 교류, CSR 등 호혜형 사업 등 융복합 사업 기획·참여
  - 란저우 한-중 우호주간 사업(6월 예정/란저우), 한-후베이 경제협력 포럼(10월/우한)
- (한중FTA) 한중 FTA활용 활용도 제고,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논의
  - 한중 서비스·무역 고위급 포럼(6월 예정/웨이하이)
  - 한-광둥 발전포럼 한중 FTA 설명회(6월/후이저우)
- (환경)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프로젝트형 협력사업 추진
  - 중국 내륙환경시장 협력 플라자(하반기/정저우·우한·창사)
    - \* 중부 6개 성(산시, 허난, 후베이, 후난, 장시, 안후이) 소재 3개 무역관(정저우, 우한, 창사)과 중국 성시정부 환경분야 협업사업 운영

### 3 대북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협력 기회 발굴

#### □ 추진방향

- 북한의 실질적 브릿지 역할 활용, 동북아 경제권 실현
  - 동북아 경제권의 실질적 관문인 북한을 활용하여, 동북아 역내 경제권 긴밀화 추진, 나아가 동북아 단일 경제권 완성
- 신북방정책의 핵심과제 및 일대일로를 연계하여 협력수요 발굴
  - 북한의 경제특구, 물류교통벨트, 다국가 협력 프로젝트를 연계한 경제협력 기회 발굴 및 사업화 추진
  - 경제, 공업, 관광, 특별행정 분야 5개 경제특구의 인프라 활용
  - 북한의 물류 및 교통벨트 활성화로 동북아 SOC 연결
  - 나진-하산 프로젝트, 두만강 하구개발프로젝트, 황금평-위화도 공동 개발 프로젝트 등 정치적 요인으로 중단된 프로젝트 재개시

#### □ 추진체계

- 광역두만강개발계획 활성화·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 활성화
  - 광역두만강개발계획과 세계은행, AIIB 등의 재정 협력 추진
  - 교통/에너지/관광/무역투자/환경/농업 등 주요 분야 정부- KOTRA 실무협의체 활성화
- 북한경제 특구의 한-북-중 공동개발, 개성공단 정상화 참여 추진 및 지원
  - 개성공단을 통해 한국의 대북한 경제 영향력 확대
  - 나선 및 황금평 경제특구의 공동개발을 통해 동북 3성 및 북한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 한국-북한-중국의 공동경제협력의 의의 》

한국	북한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기업 전용단지 조성</li> <li>▶ 유턴 중소기업 유치</li> <li>▶ 우리 중소기업의 북방 내수 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자 유치</li> <li>▶ 고용 창출</li> <li>▶ 미개발 경제특구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 3성 연계 발전</li> <li>▶ 북한 내수 진출 거점</li> <li>▶ 對韓, 對北기술 협력</li> </ul>

#### □ 사업계획

-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에 무역관 개설 검토
-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국무역사절단(1차 4월/톈진·베이징, 2차 하반기)
- 투자유치 국가IR 내 개성공단 입주업체 홍보부스 운영(하반기)

구분	사업명	시기, 장소	연관부서
시장 진출방식 고도화	타오바오 파워셀러·인플루언서 판촉전	3월/상하이	소비재전자상거래실
	캔톤페어(Canton Fair)	4월, 10월/광저우	전략전시팀
	창안 포드 Korea Autoparts Week	5월/충칭	소재부품팀
	충칭 정책매장 연계 구매상담회	6월(예정)/충칭	수출첫걸음지원팀
	지난 한국우수상품박람회	7월/칭다오(지난)	전략전시팀
	물류연계 온라인 생방송 기획전	5,7,9월/칭다오	소비재전자상거래실
	장춘 이치그룹 GP전시상담회	9월/선양	소재부품팀
	K-Global 2018	12월/선전	ICT성장산업실
	Korea Sales Festa 소비판촉전	연중/다롄	소비재전자상거래실
CBT기반 온라인시장 진출지원 사업	연중/항저우	소비재전자상거래실	
글로벌 일자리 창출	중국 취업 오픈 아카데미(1기)	3월/베이징	해외취업팀
	K-Move 취업멘토링	5월/상하이	해외취업팀
	유학생 인턴 채용 박람회 토크쇼	6월/베이징	해외취업팀
	화동지역 핀포인트 채용상담워크	6월/상하이	해외취업팀
	Computex InnoVEX 연계 K-Startup	6월/타이베이	스타트업지원팀
	한중 유망 BM 창업 토크쇼 (순회)	7,10월/칭다오	스타트업지원팀
	중화권 온라인 잡페어	10월/홍콩	해외취업팀
	한-중 Hightech Startup Partnership	11월/난징	스타트업지원팀
IT 기술인력 취업지원 사업	연중/다롄	ICT성장산업실	
수출시장과 품목 다변화	중국 환경무역사절단	5월/베이징	고객협력팀
	중국 미래형 자동차 포럼 및 상담회	6월(예정)/상하이	소재부품팀
	Green Project Plaza QingDao	6월(예정)/칭다오	소재부품팀
	중국 애니·웹툰 사절단	6월/베이징, 항저우	지식서비스팀
	K-Medi Plaza	9월/칭다오, 광저우	의료서비스팀
	로봇 수출 로드쇼	7월/선전	소재부품팀
	한-텐진 항공 파트너십 2018	9월/텐진	소재부품팀
	한-중 스마트제조 콜라보레이션 플라자	10월/난징	통상협력실
	FMC 전기차 부품 소싱 상담회	11월/난징	소재부품팀
경제협력 기회 다각화	소비재 소싱협력 로드쇼	9월/샤먼	소비재전자상거래실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박람회	10월/광저우	해외전시팀
	K-ICT 혁신기술 무역투자상담회	11월/청두	신산업유치팀
	국제수입박람회 한국관	11월/상하이	통상협력실
	2018 MAMA 연계 수출상담회	12월/홍콩	지식서비스팀

II

정부 핵심정책 이행방안

(발제 : 중국지역본부장)

## □ 배경 및 경과

- 정부 100대 국정과제(17.7) 일환 추진
  - \* “98-3 유라시아 협력 강화를 통한 신북방정책 구현” 내 “일대일로 구상 참여”, “99-1 경제협력 심화를 통한 개방적 국제경제 환경 조성” 내 “일대일로 구상에 적극 참여, 신규 비즈니스기회 창출 및 역내 경제통합 기여”(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 한-중 정상회담(17.12), 신북방·신남방정책-일대일로 구상 연계협력 합의
  -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적극 발굴하기로 합의”(VIP 기초연설, ‘한-중 산업협력 총칭 포럼’, 17.12.16)
- 한-중 경제장관회의(18.2), 연계협력에 관한 MOU (갱신)체결
  - 구체 협력사업(안) 도출위한 양국 민관공동협의 개최 합의(1.5트랙)
    - \* 협의체 구성 : 양국 중앙정부(韓 : 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북방위  
中 : 외교부, 발개위, 상무부 등), 지방정부, 경제단체, 업계, 협회, 유관기관
    - \* 연구주관 : 韓 KIEP, 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CAITEC)

## □ 일정 및 협력사업(예시)

- (일정) 민관 협력사업(안) 협의→정책제언 보고서→양국 정부 선정→이행
  - \* 양국 브레인스토밍 거쳐 민관 공동협의 2회 개최(7월초 베이징, 9월 서울)
  - \* 10월 정책보고서 확정, 11월 한-중 정상(급)회담에서 확정, '19년 이행
- 우리 측 고려 사항
  - 협력사업(예시)
    - \* 양국기업 제3국 공동진출(교통·건설 인프라), 중국 대형 지역개발사업(송안신구, 粵港澳 大灣區 건설사업, 물류단지), 물류협력,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참여, 에너지·환경협력, 경제·산업·무역 협력단지, 금융협력 등
  - 협력사업의 단기·중기·장기 구분 검토

○ (KOTRA) 9개 사업 제출\*, 협력 아이디어 제안

- \* 제3국 공동진출 조사단 파견, 광둥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박람회, 연변 즈마카이먼 020마케팅 사업, 랴오닝성 국제수입무역박람회, 항저우 전자상거래 협력사업, Belt and Road Summit 2018, 인도네시아 산업단지 공동건설

□ 연계 추진 고려사항

○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 노력 진척도

- 2정책·1개 구상 개별 사업방안은 다수 제기됐으나 연계 모색은 초기 단계

\* 광범위성, 다양성, 중첩성, 지정학적 요소 등 복합 작용

- 한-중 연계협력 MOU 체결 후에도 중국보다 한국이 더 적극적

< 중국 일대일로 지도 >



○ 상호보완적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중요

- 일대일로는 유라시아 지역경제통합 측면에서 한국 국정과제와 연결

\* 신북방정책(북·러 등 유라시아)-일대(육상 실크로드)

\* 신남방정책(아세안·인도)-일로(해상실크로드)

- 한반도 신경제지도 전략 상 AIB 활용, 북한 연계 인프라 구축

\*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中랴오닝·화북·유라시아 연결

\* 동해안 에너지·자원벨트-中훈춘·北나진·선봉·俄하산 연결

-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
  - 국가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나 실질 협력무대는 지방정부
  - 종래 단발성 교류를 지양하고 동북아 플러스·한반도 신경제 지도 차원에서 지방 간 협력 플랫폼 구축 필요
  - \* 한-중 산업단지(새만금-엔타이), 지방경제협력시범구(인천-웨이하이) 모델 확대
- 일대일로 연선국가 인프라 사업 협력
  - 남북한 경험 기대감 속 슈퍼그리드(super grid)\* 사업 유망
  - \* 러시아-몽골-북한-한국-일본을 연결하는 꿈의 에너지벨트

## □ 정책건의 및 사업제안

- ※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일대일로 구상 연계방안은 개별사업 개발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플랫폼 차원의 아이디어가 필요
- ※ 동시에 진출 시 국가 정치·경제 리스크 대비가 필수

### [한-중 FTA 내 CSR분야 포함]

#### ○ 건의

- \* 한중 FTA 협력챕터 내 CSR 분야 포함
- \* 양국 유관기관 간 CSR 협력촉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 한중 CSR 교류전 매년 교환 개최
- \* 양국 CSR 표준 및 유관기관 공동 ‘(가칭)한중 연례 CSR 보고서’ 작성
- \* CSR을 양국 통상장관회담 상설 의제로 채택

#### ○ 기대효과 : NN·NS·OBOR + FTA

- CSR은 성공적인 현지화(localization) 뿐만 아니라 HR, 대정부 관계, PR, 브랜딩, 협력업체에까지도 광범위한 효과를 미치게 되어 한중 관계가 새로운 협력 시스템으로 실질적 격상 가능
- CSR 활성화시 중국진출과 일대일로-신북방·신남방 연계 촉매작용
- 일대일로 지역 프로젝트, 민생SOC 참여확대 기대

### [민관협력사업(PPP) 활용, 인프라시장 진출]

#### ○ 제안

- \* 중국 성시·업종별 PPP DB 구축(시장기회·수요 발굴)
- \* 지방정부 협력 시스템·모델 추진
- \* 연계수요 분야 유망품목 발굴, 제3국 공동진출 방안 모색

- 기대효과 : NN·NS·OBOR + Project
  -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에서 PPP를 주요 사업방식으로 채택했으며 일대일로 정상회담(2017.5)과 AIIB 2차 연차총회(2017.6)를 계기로 규모 확대
    - \* 향후 10년 전체 인프라 투자액의 20%대(30조위엔) 상회 전망
  - ICT 인프라(광대역, 광섬유케이블, 도시화), 공항·항만·철도·건설·수리 프로젝트 공정 참여

“중국 PPP 시장의 90%는 국영기업이 주도하여, 중국 민간기업은 참여가 쉽지 않다. 한국 등 외국기업의 기회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해외건설 경험은 중국보다 20년 앞선다. 중국에 없는 노하우가 한국에 있다. 최근 중국은 동남아·서남아·아프리카·남미 PPP시장 진출 증가 추세이며 AIIB 발주 본격화('16. 하반기)로 중국 자본-한국 투자기술의 협력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왕서우칭王守清 칭화대 국제건설프로젝트관리연구원 부원장)

(발제 : 베이징무역관)

## 1. 글로벌 일자리 환경 변화와 정책 요인

## □ (환경변화) GVC 확산에 따른 취업환경 변화와 국내 청년 실업 문제

-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에 따른 취업환경 변화
  - GVC는 글로벌 소싱 흐름과 연결되며 국내-해외 노동시장 부조화 및 불일치 야기
  - 장기적으로 특정 직무, 기술, 자격에 인재 쏠림 심화 가능성

&lt; 글로벌 공급방식 및 노동시장 환경 변화 &gt;

구분	공급방식	특징	노동시장 환경
과거	계열화	한 지역내 모든 가치 사슬	지역 노동시장 다양성 증대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	지역별 특정 공정 특화	국내-해외 노동시장 부조화, 불일치

- 국내 청년 실업률, 외환위기 후 가장 심각
  - 청년 실업률은 10.7%로 전체 실업율(4.1%)의 2.6배 수준('18.4 기준)
  - \* “청년 4명중 1명 실질적 실업상태”, 청년 체감 실업율은 24% 수준
  - \* 대졸 실업자 26만 명 중 10%만 해외취업 관심·희망('17. 1분기, 고용노동부)

## □ (국내 정책)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국정과제(일자리-성장-분배 선순환)

- 단기적으로는 창업과 일자리 매칭 통한 일자리 증대, 중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고도화에 중점
  - 해외 취창업 지원사업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일치 필요

## □ (중국 정책) ‘신경제 추진 속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革新)” 시행

- 중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 확보, 실업률 해소 위해 창업지원 강화
  - 급증하는 국내대학 졸업생과 해외유학생의 창업 촉진 위해 세금 감면, 임대료 보조,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 \* 중국내 창업지원 플랫폼 5,000여개, 매년 인큐베이팅 기업 50만개('17년)로 전세계 1위
- 전자 상거래 급성장, 창업 생태계 구축, 정부의 지원에 따라 창업 활성화
  - \* '17년 中 1일 신설기업수 1.65만개
  - \* '17년 도시 신규 취업자(1,097만명)의 25%(274만명) 신생기업에 고용
  - \* '17년 中 신설기업당 고용자수 6.3명(英 2.3명, 獨 1.7명, 韓 1.5명)

## 2. 중국지역 해외취업 지원 현황과 사업추진 방향

### □ 2017년도 KOTRA 중국지역 해외 취업 지원 현황

- (量) 취업자수 전년대비 59.3% 상승한 43명(15년 25명→16년 27명→17년 43명)
  - (유형) 진출기업 22개사 (51.2%), 외국기업 15개사 (34.9%), 교포기업 6개사 (14.0%)
  - (직종) 사무·관리직 31명(72.1%), 연구직 5명 (11.6%), 기타 서비스직 5명 (11.6%)
- (質) 평균 연봉 3,137만원으로 글로벌기업 진출기업 등 '좋은 일자리 취업자 다수 존재'

연번	지역	취업자수	주요기업
1	베이징	16	D사(IT), L사(금융) 등 9개사
2	상하이	9	A사(전자상거래), M사(금융) 등 8개사
3	홍콩	16	C사(호텔), M사(패션) 등 13개사
4	다렌	1	H사(금융) 1개사
5	충칭	1	S사(제조) 1개사

### □ 대내외 사업 추진의 기회요인과 제약요인

기회요인	제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풀) 풍부한 중국어 능통 유학생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중 한국인 유학생 7만명(전세계 1위)</li> </ul> </li> <li>◆ (기업) 中 대외개방 확대로 다국적기업 구인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진핑 주석, 개혁개방 로드맵 발표('18.3)</li> </ul> </li> <li>◆ (정책) 일대일로 관련국 취업수요 증가 기대</li> <li>◆ (창업) 중국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지원책</li> <li>◆ (협력) 한중 FTA 서비스분야 후속 협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시) 中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졸자 취업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대졸자 820만명 예상</li> </ul> </li> <li>◆ (제도) 취업허가 기본요건으로 석사 이상 또는 2년 이상 경력자 요구</li> <li>◆ (임금) 현지직원-외국인직원간 임금격차 2배 ↑</li> <li>◆ (사업) 재중 유학생 대상 지원사업 부족</li> <li>◆ (플랫폼) 중국내 취·창업 지원 플랫폼 보강 필요</li> </ul>

### □ 향후 사업 추진 방향

- 중국특성 맞춤형 전략으로 좋은 일자리 발굴 통한 성과 창출  
<사업 추진 방향>

기존(As-Is)	개선(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형화된 일률적 사업 추진</li> <li>· 사업 추진의 분절화, 단편화</li> <li>· 취·창업의 연계성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수요 연계 성과 중심 사업</li> <li>· 플랫폼 기반의 사업 추진</li> <li>· 협업을 통한 취·창업 시너지 효과 제고</li> </ul>

### 3. 중국지역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전략

<b>목표</b>	<b>한중 新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b>
<b>구분</b>	<b>추진 과제</b>
<b>성과 중심</b>	⇨ ▶ 현지 수요 연계형 청년 해외 취업 지원 ▶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 추진
<b>플랫폼 구축</b>	⇨ ▶ 글로벌 창업기업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b>상생 협업</b>	⇨ ▶ 공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글로벌 일자리 창출 지원

#### □ 현지 수요 연계형 청년 해외 취업 지원

- KOTRA 글로벌 사업과 현지 수요를 연계하여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무역·투자-일자리 선순환(virtuous circle) 구축
  - 해외취업이 단순히 국내 구직인력을 밀어내는(push marketing) 방식이 아닌 KOTRA 글로벌 사업과 연계한 인적교류 활성화(push & pull marketing)
  - 이를 통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유도하는 동시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의 선순환 마련
- 업종 및 산업, 중국 정책, 시장동향 파악을 통해 수요별 4대 타겟 분야 특화 지원

#### ① GVC 확산에 따른 글로벌 인재 수요

- GVC 확산에 따른 중국 글로벌 기업의 한국인을 비롯한 글로벌 인재 채용 필요성 증가
  - GP China 사업('18.4) 참가 바이어 대상 설문 실시 결과, 10여개사 이상이 한국인 채용 수요가 있다고 응답
- 중국 진출 다국적기업, 아시아 소싱 센터 연계 구인처 발굴

## ② ICT, R&D, 친환경 '신산업' 분야 수요

- 중국제조 2025 추진에 따라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산업 적극 육성

\* (사례) 중관춘 블록체인 연맹 산하 회원사 대상 구인수요처 발굴

- 6.7 유학생 취업·인턴 박람회 참가, 구인수요 7개사 36명, 인턴 수요 9개사 33개명
- 회원사인 중국기업 블록체인 스타트업 채용 설명회 별도 개최 협의중

→ 현지 협회, 전문 HR 기관 및 기업 활용한 구인 수요 발굴

- 진출 기업들도 신산업 수요 증가에 따른 R&D 인력 수요 증가

\* (사례1) M사(자동차부품) R&D 센터

- 한국인 유학생(이공계) 채용 성과(17.6명 채용)
- '18년에도 약 10명 정도의 유학생 채용 예정(KOTRA 협력중)

(사례2) K사(난방용품 제조) 베이징 스마트 공장

-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 영향으로 친환경 난방 제품 시장 개척, 매출 2~3배 ↑
- 기존 在韓 중국유학생 채용에서 在中 한국인 유학생 채용으로 확대(구인 7명)

→ 1사 1청년 일자리 운동 연계 유관기관(상회,무협 등)과 구인정보 발굴

## ③ 중국 일대일로 관련국 구인 수요

-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라 동남아, 중동, CIS 지역 일자리 수요 증가
- 화웨이를 비롯한 주요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의 해외진출 급증

\* (사례) KOTRA 베이징무역관 단기용역 근무 유학생(GP 사업 담당)이 GP 사업에 참가한 화웨이에 취업. 7월부터 화웨이 중동지사에서 근무 예정

→ 중국 관련 협회 및 AIB 등 KOTRA의 글로벌 네트워킹 활용 구인수요 발굴

## ④ 중국의 서비스산업 육성에 따른 관련 수요

-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 일환으로 서비스업 육성 및 서비스무역 확대 정책 추진

\* (IIE STRA) 중국기업(컨텐츠 서비스 기업) 한국인 1명 채용 예정('18. 6월)

- 6.7 베이징 취업·인턴 박람회 현장 부스 참가 후 2차 면접 후 합격통보
- 한국팀 사업개발 인력으로 先인턴 後채용 통한 비자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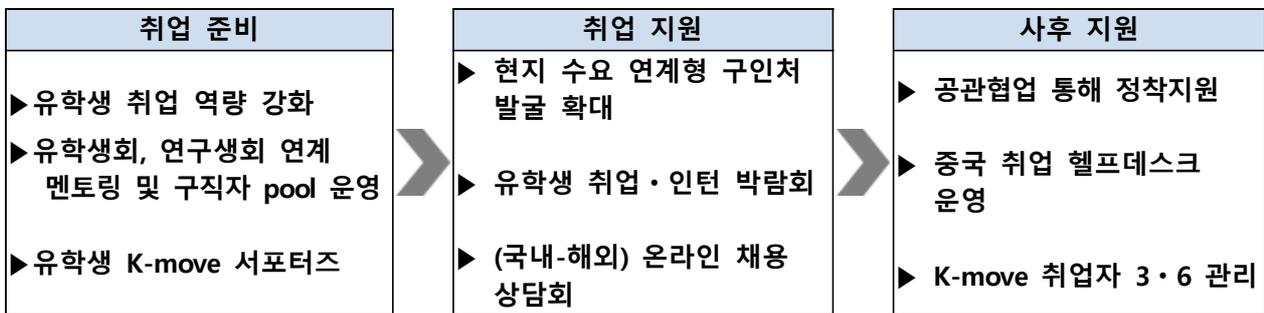
→ 서비스업 관련 협회 및 현지 기업 활용한 구인 수요 발굴

- 서비스업 관련 대한민국 투자 또는 한국시장 마케팅 확장하는 중국 기업 수요 증가
  - 한중 FTA 서비스분야 후속협상에 따라 관련 분야 수요 증가 전망

\* (사례) 중국판 유튜브 콰이쇼우(Kwai, 중국 최대 영상 클립 공유 앱)  
 - 중국내 한국직원 수 약 10명  
 - 중국 문화콘텐츠의 한국 현지화 위해 한국인재 수요 증가

→ 대한민국 비즈니스중인 중국기업 연계 일자리 발굴

### □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 추진



#### 취업 준비 : 취업 역량 강화

- (취업역량 강화) 유학생 취업 오픈 아카데미 개설·운영('18.4~6월,
  - 정부 취업 정책은 국내 구직자 대상으로 유학생 지원은 공백 상태
  - 중국 최초로 대사관과 공동으로 1기 수강생(35명) 개설 운영
  - 일회성 행사에서 탈피 → 8주에 걸친 패키지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 취업정보, 멘토링, 실전 취업 코칭(자소서·이력서·모의면접), 네트워킹
- (구직자 pool 발굴) K-move 홍보대사(서포터즈) 운영('17.11~)
  - 재중 한국 유학생들의 국내외 취업 지원을 위해 홍보대사를 중심으로 취업 관련 행사 기획, 홍보 활동 지원
  - '18년 하반기에는 K-Move 제2기 홍보대사단을 구성
- (멘토링 강화) 유학생 멘토링 데이(공관협업)
  - 상하반기 대사관과 공동으로 취업에 성공한 선배를 멘토로 활용 멘토링 시행. 개별적인 코칭 등 취업전략 수립하도록 지원

## 취업 지원 : 좋은 일자리 매칭

- (취업직결형 사업)유학생 취업·인턴 박람회개최 ('18.6.7.)(공관 협업)
  - 참가규모 : 유학생 350여 명, 한중 기업 44개사
  - \* 구인 40개사 130명, 인턴 53개사 141명 수요 발굴(심층 면접 120건)
  - 행사구성 : 토크콘서트(취업/인턴십), 취업박람회 및 라운드테이블
  - 목적 : 중국지역 1사 1청년 일자리 운동 후속 성과 사업, 유학생 대상 중국 현지 기업 취업 지원 강화
  - 주요성과 : D사(중장비) 9명, I사(컨텐츠) 1명 인턴 채용(6.9 현재)
- (일자리 정보 공유채널 확대) 체계적인 일자리 정보 제공
  - 기존 단편적인 뉴스레터 전파채널을 다양한 홍보채널로 확대

### 채용정보 수집·전파채널 개선(안)

- ◆ 채널다변화 : 중국 최대 SNS 플랫폼 위챗 활용, 맞춤형 구인처 발굴 및 전파
  - \* 위챗 한국어 플랫폼 : 중국 기진출(예정기업) 대상 구인처, 구직자
  - \* 위챗 중국어 플랫폼 : 중국 로컬 기업 대상 구인처
- ◆ 대외협업 : 네이버 X 중국판과 취업·채용 정보 협력 예정
- ◆ 중국 취업 카페 : 유학생 및 국내 취업희망자 대상 정보 공유 및 멘토링

## 사후지원 : 커뮤니티 촉진

- K-move 취업자 사후 관리제 시행
    - K-move를 통해 중국 취업한 경우, 현지 K-move 센터에서 취업 3개월, 6개월 시점에서 취업자 근무상황 점검
    - 근로조건, 노동법 준수 여부 등 점검, 불량 구인기업의 구인제한 등 활용
  - K-move 중국 취업 헬프데스크 운영 활성화
    - 헬프데스크 홍보를 통해 중국 취업자가 적극 이용토록 안내
    - 취업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 FAQ 자료집 활용
- 글로벌 창업기업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글로벌 창업기업의 무역, 투자, 기술, 인적 교류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글로벌 창업기업의 일자리 창출 우수 성과 시현

- K-move의 인재매칭 플랫폼 활용, 유학생과 스타트업간 인재매칭 활성화 및 사전 인재매칭 서비스 활용 확대

\* 글로벌 창업기업의 수출 및 고용 창출 효과(자료원: KIET)

- 글로벌 창업기업 평균 수출액 35.7억원(비글로벌창업기업 22.6억원)
- 글로벌 창업기업 순고용창출 7명(일반 창업기업은 3.4명) 등 높은 실적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 혁신 산업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블록체인, IoT, 바이오 등 중국이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에 한중 스타트업의 상생 협력 지원
  - 유망분야에 대해 창업시점부터 고급 성장을 목표로 시장과 고용 기회의 창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
- 중국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국내 혁신 스타트업의 중국 창업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임
  - 인지도가 부족한 글로벌 창업기업의 중국 파트너와 전략적 제휴 및 파트너십 강화 지원을 통해 현지시장 착근(着根) 지원

<중국과 이스라엘간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시기	중국측	협력방식
2015.3	알리바바	Jerusalem Venture Patners에 1,500만 달러 투자, 이스라엘 스타트업 발굴
2016.3	칭화대학교 등	중국 7개 대학과 이스라엘 7개 대학이 연합하여 칭화대학내 '중국- 이스라엘 혁신창업기지' 설립

**한중 스타트업 오픈 인큐베이션 플랫폼 구축**

- 목적 : 생태계 관점의 공유가치를 공동 창출하는 개방형 협력적 전략 네트워크, 오픈 인큐베이션
- 구성
  - (韓) 중기부, KIC 등과 중국내 스타트업 지원 사업 협력
    - \* KOTRA : 현지 시장 수요 조사 → 수요 DB 구축 → 상시 매칭 (정보제공, 한중간 협력수요 발굴, 마케팅, 투자유치, 법률자문 등)
    - \* 자금 : 중기부 벤처펀드 활용
    - \* 인큐베이터 : 중기청 BI 센터, KIC 베이징사무소 입주 공간 활용 등
    - ※ 공관 중심으로 한중창업지원협의회 운영(종합적 지원 협의체)
  - (中) 중국 혁신 기관인 Techcode, 중관춘 칭화과기원, 동승과기원, 국제기술 이전센터 등(기 MOU 체결) 유관기관과 공동사업 개발
    - \* 테크코드 :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투자유치, 창업 컨설팅 협력(멘토)
    - \* 중관춘 동승과기원 : 한국기업 입주 혜택, 전문가 멘토링, 투자 유치
    - \* 국제기술이전센터 : 한중 기술교역지원 플랫폼(지재권, 스타트업 분야)

□ 공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글로벌 일자리 창출 지원

- (HRD 협업 인프라) 일자리 글로벌 협업 컨소시엄 구축 및 협업사업 개발
  - (韓) 공관을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협업 사업 개발
    - \* 대사관, 한국상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회, 유학생회 등 포함
  - (현행) 유관기관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경합을 벌이는 구조로는 장기 성과 지향 어려움
  - (향후) KOTRA, 유관기관, 민간 HR 기업간 역할분담과 기능 명확화, 조직화, 지속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HRD 컨소시엄 구축
  - HRD 글로벌 컨소시엄이 중국에도 기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일자리 창출과 해외취업이 동시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플랫폼 구축

<공관 협업을 통한 HRD 컨소시엄 구축>

공관 (고용관, 교육관, 정통관)	KOTRA (K-move 센터)	유관기관 (상회,무협,KIC)	취창업 멘토단	유학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창업 협의회 운영</li> <li>▶ 정부간 제도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창업 역량 강화지원</li> <li>▶ 현지 수요 발굴</li> <li>▶ 구인처, 구직자 DB</li> <li>▶ 구직자 사후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사 대상 취창업 수요 발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학생 멘토링</li> <li>▶ 취업 역량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자 애로접수</li> <li>▶ 취창업 사업 기획</li> </ul>
<p>제도 개선, 정책 지원</p>	<p>인프라 지원</p>	<p>취창업 기업</p>	<p>멘토링</p>	<p>취창업 희망자</p>

- (中) 중국 교육부 유학생 복무센터 등 유관기관 협회 등
  - 중국의 고급인재 유치 목표와 한국의 재중 유학생의 일자리 발굴 연계
  - 교육부 유학생 복무센터는 매년 재중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개최, 향후 중국기관의 플랫폼 활용 공동 개최 협의중
  - \* '18. 5월 제 5회 재중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박람회 개최

## 첨부1

## 중국 내 유학생 현황

### □ 해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

- 1위 중국, 뒤를 이어 미국, 호주, 일본 순
  - 중국 70,540명(30.5%), 미국 61,007명(25.4%)
- 중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09년 6만명 넘어선 후 꾸준히 증가세
  - 在美 유학생은 '10년 75,065명으로 정점 찍은 후 하락세
  - 在中 유학생 7만명 중 어학연수 등 제외한 본과생 이상은 2만3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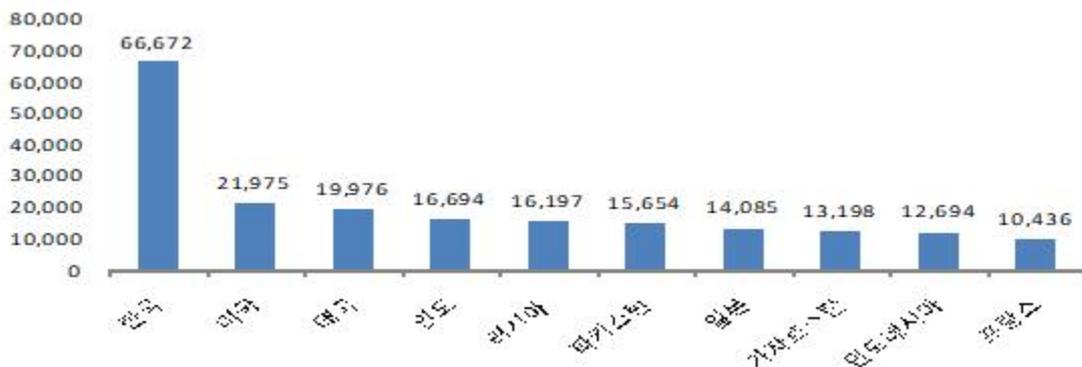


전문대	학부생	석사생	박사생	보통 <sup>1)</sup> 진수생	고급 <sup>2)</sup> 진수생	단기 <sup>3)</sup> 연수	합계
154	19,614	2,765	1,065	30,241	140	16,561	70,540

- 1) 보통진수생 : 대학 2학년 이상 학력, 45세미만, 연수기간 2년 이내, 종료 후 수료증 발급
- 2) 고급진수생 : 석사 이상 학력, 부교수직 소위 50세 미만자로 연수기간은 1년 이내고 종료 후 수료증 발급
- 3) 단기연수생 : 어학연수 + 6개월 이하의 단기연수생

### □ 재중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인 유학생 최대

- 재중 유학생 39만 8천명 중 한국유학생이 최대(16.8%). 미국의 약 3배 이상('16년말 기준)



## 첨부2

## K-move 사업 중국 취업 지원 현황

### □ 총괄

- K-Move 사업 전체 해외취업자는 5,157명, 전년대비 7.1% 증가
  - 日(1,428명), 美(1,079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약 절반(48.6%)
  - 중국 취업자는 269명으로 전년대비 23.4% 증가(비중 '16년 4.5%→'17년 5.2%)
  - \* '17년 중국 항공사의 항공승무원 채용 증가(91명) 영향

<국가별 최근 3년간 해외취업자 수 현황(단위:명)>

구 분	계	중남미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폴	오세 아니아	중국	캐나다	중동	기타
계	12,871	228	2,750	3,163	1,601	906	686	179	751	2,607
2017년	5,157	116	1,079	1,428	540	432	269	65	126	1,102
2016년	4,811	71	1,031	1,103	678	340	218	56	415	899
2015년	2,903	41	640	632	383	134	199	58	210	606

### □ 2017년 K-Move 중국 취업의 주요 특징

- ① 진출기업·한상 위주 → 현지·외국기업 확대(※ 항공 승무원 비중 상승)
  - \* 현지기업 비중: (2016) 40.8% → (2017) 52.8%
- ② 사무관리직·서비스직 위주 채용 지속
  - \* 사무·서비스직 비중: (2016) 79.8% → (2017) 90.0%
- ③ 29세 전후 국내 대졸자가 다수
  - \* 취업자 평균 나이 : ('16년) 29.3세 → ('17년) 28.7세
  - \* 대졸자의 86.1%가 국내 대졸자, 중국 등 기타지역은 14.9%
- ④ 연수기관 연수 후 취업, 민간알선, 공공알선이 각각 비슷한 수준
  - \* 민간위탁 연수 후 취업 30.9%, 민간기관 알선 32.7%, 공공기관 알선 36.4%
- ⑤ 해남·상해가 전체 취업자의 77.4%를 차지, 기타 강소·요녕 순
  - \* 해남 40.4%, 상해 37.4%, 강소성 7.4%, 요녕 4.4% 순

□ A사(패션유통, KOO 대표)

- 대학 선후배 사이인 JOO/KOO 대표가 중국 소주 어학연수 중 공동 설립 (2008년, 상해)
- 중국 알리바바 Taobao 중간상인에게 한국 패션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을 최종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B2B2C몰 (thejamy.com) 시작
- 한국상품의 구매 대행사업(100bang.com), 한국 브랜드의 중국 온라인 상점 대리 운영 (운영대행), Tmall Global 내 직영 상점 운영 등 사업 다각화
- 2017년 매출 2,000억(추정), 홍콩 지주회사(공동대표 강철용, 이윤식)와 상하이, 옌청, 한국, 미국 뉴저지 등 4개 지사

□ M사(온라인 Application 개발, KOO 대표)

- 푸단대학교 경제학원(复旦大学 经济学院) 졸업생 KOO 대표가 중국인 동창생 4명과 함께 설립 (2011년 4월, 상해)
  - ※ 유학생 출신 창업자가 푸단대학교 경제학원 중국 친구들과 창업, 추가로 칭화대학교에서 CTO를 영입한, 전형적인 중국형 창업모델
- 스마트폰 첫 화면에 광고를 제공하는“머니라커 (Money Locker)” 서비스 시작(13.6월), 3년만에 5,000만명 유저 확보
- 2017년 매출 500억(추정), 직원 300여명으로 성장

□ T사(SNS, JOO대표)

- 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과 동시에 중국 친구와 함께 소셜 메신저 ‘타타유에프오(tataUFO)’ 서비스 창업 (2013년 7월, 북경)
- 현재 중국 400여개 대학교의 사용자 1,100만 명을 돌파하며 성장 중
- S벤처스와 중국의 벤처캐피탈(VC) 등에서 현재까지 총 130억원의 투자 유치

## 첨부4

## 중국 외국인 취업허가 및 비자 관련 제도

### □ 취업 허가 요건 및 기간

- 중국 내 석사이상(졸업 1년 이내) 졸업자 및 해외우수대학 석사이상(졸업 1년 이내) 졸업자('17.1월 시행), 취업기간은 최장 5년임  
\* 성적 80점(B/B+) 이상, 학교생활 성실, 지역 평균임금 이상 조건
-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은 고급인재·전문인재 이상의 외국인('17.4월 시행)

구분	해당 인재
A급 (고급인재)	△국가 외국인재유입계획에 따른 인재 △국제공인 전문성 인증표준 부합 인재 △시장발전 촉진 필요인재(지역 평균임금 6배 이상 임금 포함) △창신창업 인재 및 우수 청년인재 △종합점수 85점 이상
B급 (전문인재)	△학사 이상, 2년 이상 유관분야 경력자로 기업 등 채용인원 △국제통용 직업기능 자격증 소지 등 기능형인재 △임금이 지역 평균임금 4배 이상 인재 △국가 유관부문 규정 또는 사업 부합 인재 △종합점수 60점 이상
C급 (기타인력)	△임시·단기성 취업 외국인(90일 이내) △정부협의를 따른 인턴실습생 등 쿼터 관리 외국인 등

### □ 지역별 허가 요건

#### ① 상하이

구분	허가 요건
외국인 유학생	△상해 내 대학이상 졸업(1년내) 외국인 중 상해 자유무역구 및 자주 창신 시범구 취업 △중국 내(상해 제외) 석사 이상 졸업(1년내) 우수 외국유학생
외국대학 졸업생	△ 외국 우수대학 졸업생(졸업 1년내) 중 자유무역구 및 자주창신시범구 내 다국적기업 본사, 투자회사 및 외자연구개발센터 취업자 △ 외국 우수대학 석사이상 졸업생(졸업 1년내) 중 상해 취업자
외국 포스트닥터	△ 40세 이하 외국 우수대학 및 중국 내 대학 포스트닥터 청년인재

#### ② 11개 자유무역지구(FTZ)

해당 지역	취업 관련 특례
광둥	공안기관 등록기업의 실습요청으로 입국한 외국대학생이 직접 단기비자(실습) 신청 가능, 기타 종류 비자로 입국 후 중국 내에서 단기비자(실습) 신청 가능
저장	외국학생 졸업 후 창업 위해 2~5년 개인사무 거류증 신청 가능, 체류기간 중 취업시 취업비자 신청
텐진, 푸젠, 랴오닝,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陝西)	외국학생 졸업 후 창업 위해 2~5년 개인사무 거류증 신청 가능, 체류기간 중 취업시 취업비자 신청. 공안기관 등록기업의 실습요청으로 입국한 외국대학생이 입국시 직접 단기비자 신청 가능, 기타 비자는 단기비자(실습) 전환 가능

Ⅲ

**‘신시대 중국’ 정부정책을 활용한 무역투자 확대 전략**

(발제 : 칭다오무역관)

온라인에서 시작한 중국의 소비유통 혁명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나 오프라인과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른 바 신유통(新零售)이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짚어보고 우리기업에게 필요한 코트라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가. 온라인 기업이 주도하는 신유통(新零售)

### □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활로 - 결합형 비즈니스 모델

-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위기와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세 둔화로 중국 유통시장은 온-오프라인 융합 (O2O→ O4O→ OAO)으로 변화중
  -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 2010년 106%→ 2016년 26.2%로 둔화
  - \* 신유통(新零售)은 2016년 알리바바의 마윈이 제시한 개념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오프라인·물류 등 3개 분야를 융합한 새로운 유통 모델을 의미

<신유통(新零售) 대표 사례>

- ▶ 알리바바 : 중국 최대 오프라인 유통기업(바이렌)과 전략적 협력
  - 온오프 결합 체험형 신선식품 슈퍼마켓 허마센성
  - 무인편의점 타오카페, 티몰의 오프라인 매장 티몰 스토어 해외직구 온라인쇼핑몰 티몰글로벌의 오프라인 매장
- ▶ 징둥 : 5년내 온·오프 결합형 편의점 100만개 목표
  - 옹후이, 웨이핀후이, 까르푸, 완다 등 온오프 유통기업과 협력관계 확대
  - 대형 SPA 의류업체 하이란즈자 지분매입, 롯데마트를 인수한 리친과 협력

### □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폭발적인 상승세를 지나 성숙기로 진입

- (규모) 2016년 중국 전자상거래 교역액 20조 2천억 위안, 26.2% 성장
  - \* 인터넷이용자 7.3억명(보급률 53.2%), 인터넷쇼핑몰 고객 4.7억명(12.9% 증가)
- (구조) B2B 72.1%, B2C·C2C 23.3% 비중

- ▶ B2B 상위 9개 플랫폼 전체 매출의 70% 이상, 알리바바 1위 48%
  - \* 2위 環球資源 (6%), 3위 金泉网, 燉煌网, 慧聪网 (각 5%)
- ▶ B2C 전자상거래 소매교역액 4조 7천억 위안(23.9% 증가), 2013년 이후 성장 둔화되고 있으나, 상용 기술, 고객 수, 매출액 등 전 세계 최상위
  - \* 2016년 사회소비품소매총액 33조 2316억 위안의 약 14% 비중 (PC-24.7%) 티몰(Tmall) 56.6%, 징둥(JD) 24.7%로 80%이상 점유 (모바일-75.3%) 알리바바(Tmall, Taobao) 82.6%, 징둥(JD) 7.5% 등 90%이상 점유

## □ 국경 간 전자상거래 꾸준한 성장세

- 중국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는 2017년 1조 8543억 위안으로 55% 증가
  - 주요 플랫폼 중 왕이카오라, 티몰, 징둥이 전체 시장의 61%를 차지, 특히 왕이카오라 (25.8%)와 티몰 (21.9%)은 매년 상승세

## □ 中 정부의 전자상거래 육성 방향과 주요 이슈

- 중국 상무발전 13.5규획 (2016-2020년) : 소비중심 성장 구도 정착
  - (2020년 목표) 소비시장 규모 48조 위안 (5년간 연평균 10% 성장)
    - \* (05) 6.8조위안→(15) 30.9조위안(연평균 16.0%)→(20년) 48조위안(연평균 10%)
  - (온라인 소비) 전자상거래 소매판매 9.6조 위안 (연평균 20% 성장)
    - \* 전자상거래 소매/사회소비품소매 비중 : (10) 3.3%→(15) 12.9%→(20) 20%
-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 13.5규획 (2016-2020년)
  - 온오프라인 융합발전 유도,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 토대 마련, SNS 고도화 추진, 도농간 균형 발전, 전자상거래 금융지원 등 활성화
    - \* 특히 지방정부의 대외 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한 정책의지 매우 높아, 허난성(보조금 지급), 산둥성(전자상거래 생태환경 조성), 저장성(보세구 모델 확산) 등 잇따라 발표
  - 금융서비스 혁신, VR 등 과학기술 육성, 전문인재 양성, 산업단지 조성, 물류표준 및 체계 구축
    - \* 네트워크 안전법 • 전자상거래법 시행, 지적권관련 법률정비 등
    - \* 전통적인 B2B 유통업체의 전자상거래 병용, 국내외 물류거점 산둥성 린이 전자상거래 업체 밀집지역으로 부상
-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정책중 (국가가 정한 품목 + 면세폐지 + 일반무역 통관) 통관 및 인증 분야 3차례에 걸쳐 실시 유예
  - \* 15개 시범지역 :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톈진, 푸저우, 핑탄, 허페이, 청두, 다렌, 쑤저우, 칭다오 등
  - \* 화장품 등 미인증 수출초보 기업의 진입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

- 
- ☞ 전자상거래 기반 알리바바, 징둥이 신유통(新零售) 생태계 주도
  - ☞ 시장 성숙단계(지역), 기업역량(진입수준), 제품특성 고려한 중국지역 무역관간 유기적인 지원 체계 필요
-

## 나. 기회요인과 당면한 문제점

### □ 소비시장 업그레이드 수요 확대

- 다양한 소비 트렌드 및 채널 생성에 따른 소비시장 진입 기회 확대
  - 모바일, 왕홍(인플루언서, 파워블로거, BJ) 경제 등 신 소비 트렌드에 따라 소비 주체의 세분화, 소비 채널의 플랫폼화 가속
- 중산층\* 증가, 해외직구 등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
  - 헬스, 뷰티, 고급식품 및 관련 서비스 중심으로 수입시장 확대
  - \* 2~3억명의(소득분배 상위 30%, 연소득 2만달러이상) 사회 엘리트 계층

### 중국 내수시장 트렌드

- (플랫폼)뷰티·의약·영유아·신선식품, 친환경/안전방호제품 등 전문성 강화
- (OAO) 미래형 유통(新零售) 유행 (신기술+ 온오프 + 물류 결합)
- (마케팅) 생방송, 왕홍 등 온라인 마케팅 지속 확대
- (마케팅) 위챗상점(기업계정), 위챗 마케팅 등 이용률 증가

### □ 해외직구 정책변화 및 비관세장벽 강화

- 지역별 유통·물류·마케팅 비용이 많이 소요, 외국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

<중국시장 진입단계별 애로사항 >

단계별	사전준비	진입준비	수출통관	유통마케팅	사후관리
애로사항 (진입장벽)	유통시장 지식부족	유력유통상 접근,관리	인증·허가 관세,소비세	고비용구조 (입점, 마케팅, 물류, CS, 광고 등)	재고관리 A/S

- (정책) 해외직구 수입제품에 대한 세금징수 및 비관세 장벽 강화
  - \* (기존) 세금 50위안미만 제품 면세→(변경) 관세0%, 증치세율·소비세율의 70%
  - \* 요우커 감소, 품질안전 감독관리 체계 (통관서류 및 상품검역/인증) 강화

### □ 韓기업 대부분 소규모 기업으로 자원 투입에 한계

-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역부족
  - 수출 중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약 40%, 35천여개) 시장으로 정부 정책지원(보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 생활소비재 86.4%가 종업원 10인 미만 영세기업

□ (지원사업) 단계별 시장진입 정도에 따른 사업추진 체계 보완 필요

- (방식·채널) 온라인 수요연계형 상담회 및 단기적인 왕홍 판촉에 집중 기업별 역량, 진입수준 반영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보완 필요
  - \* 상하이: 파워셀러 연계, 왕홍판촉 항저우/칭다오 : 물류특화, 왕홍판촉
  - \* 선양/난징/정저우 :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연계 020 사업
- (품목·마케팅) 화장품, 식품 분야 국내기업이 과도하게 중복

다. 소비재 진출확대를 위한 업무추진 방향

□ (품목) 화장품 → 다양한 품목 분야로 확대

-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韓소비재 선호경향을 여타 분야로 확산
  - \* 산업부 육성 5대 소비재 : 화장품, 식품, 패션, 생활용품, 의료보건
- (화장품·식품) 브랜드·제품군 확대, 다양한 지역의 온오프 유통채널 진입
- (패션) 중국 편집샵·내륙 바이어 등 신규 유통망 발굴
- (영유아) 기저귀, 분유, 물티슈 등의 인기를 영유아 생활용품·화장품·식품·완구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홍보 마케팅 추진
- (생활용품) 주방 및 인테리어 소품·친환경·안전(방호) 등 분야별 전문 유통기업을 발굴하여 신시장 개척

□ (채널확대) 온오프 병용(결합형/무경계)추세에 따른 기존 네트워크 활용

- 중국내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전문 무역상사, 한국에 경험이 있는 중국인(조선족, 한국유학 한족) 사업자 활용 확대
  - \* 소비재 전문 무역상사, 온라인 전문 마케팅사, 조선족 무역회사(OKTA) 등
  - \* 오프라인 대리상의 온라인 진출 및 집단화 (전자상거래협회 중심) 추세

□ (협업) 중국내 무역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확대

- (무역관) 中지방정부 정책기반 활용, 무역관간 역할분업형 사업 추진
- (외부) 정부부처·유관기관·협회·외국기관 등으로 사업추진 기반 확장
  - \* 현지진출 유관기관 : aT·수협·무역협회·중진공·패션협회·지자체 등
  - \* 현지진출 기업협회 : 한국상회·OKTA·조선족기업인협의회·업종별협회(화장품, IT등)

□ (방식) 한국기업의 시장진입 단계별, 역량별 주기형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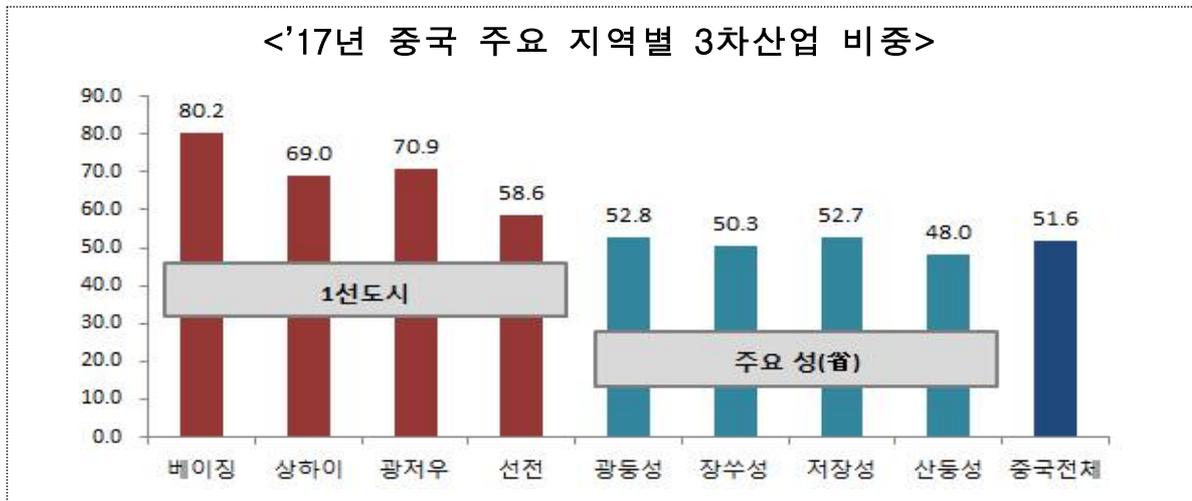
- (정보제공) ① 중국 온오프라인 유통기업·벤더 정보 ② 한국 소비재 기업 정보 조사 및 네트워킹 (상하이, 베이징 주도)
- (수요연계) 주요 온오프 유통망 입점 및 판촉 지원 (전 무역관)
  -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B2B 대리상, B2C 소비자 확보 및 판매 목적
  - 온오프 유통망 입점 상담회, 기획 판촉전, 소싱전시회 등
- (홍보마케팅) 기업 홍보콘텐츠를 온라인·미디어 통해 배급 (전 무역관)
  - 인터넷언론: 인터넷 언론사에 한국 제품이나 홍보콘텐츠 기사 작성
  - 카페·커뮤니티: 화장품·영유아·패션 등 전문 인터넷 커뮤니티에 홍보
  - 파워블로거: 한국 소비재 타겟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왕홍 연계 지원
  - \* 현지 온라인 전문 마케팅사와 협업, 수익자 부담 유료사업(바우처, 5:5)으로 개발
  - \* 중소중견 맞춤형 서비스 제공, 특히 브랜드관 운영중인 중견이상 기업수요 대응
- (물류) 기업 수요별 서비스 차별화 (물류거점)
  - 초보기업: 재고관리 리스크, 비용 축소를 위해서는 국내 직배송 물류활용
    - \* 인천-웨이하이, 칭다오 연계 해운 (경비 2/3 절감, 운송기간 1-2일)
  - 안정적 수요를 확보한 중소 중견기업 : 공동물류, 보세구 창고 활용
    - \* 상하이, 항저우 등 공동 물류네트워크 사업 무역관
    - \* 전자상거래 주도 플랫폼(알리바바, 징동) 물류센터 연계사업 추진시 입점기업 매출 확대 효과, 칭다오 무역관 등 신규 사업모델 개발 추진

(발제 : 광저우무역관)

## 가. 중국 서비스시장 현황

## □ 중국경제, 서비스 중심의 경제구조로 재편

- '13년 이후 중국 GDP 중 3차 산업이 최대 비중 차지
  - 중국의 3차산업은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 분야가 선도
  - \* 3차산업 비중 : ('07년) 42.9% → ('12년) 45.3% → ('17년) 51.6%



- 신창타이(新常態) 환경 하에 내수확대, 고용촉진을 위해 중국정부는 서비스업 육성과 서비스무역 확대 정책을 추진
  - <13·5 계획>에서 서비스업 육성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 13·5계획 서비스업 육성방안 : ①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②생산성 서비스업 전문화 촉진, ③생활형 서비스업 품질 개선, ④서비스업 발전정책 및 환경 개선
  - 특히, '현대 서비스업'\*을 서비스업 발전방향으로 규정하고 제조업, 농업 등 모든 산업분야에 서비스 개혁을 연계\*\*
    - \* 현대 서비스업 : 첨단기술 기반, 전문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통칭
    - \*\* 인터넷 플러스(+)를 통해 다양한 업종이 폭넓게 결합, 업종간 융합과 업그레이드 추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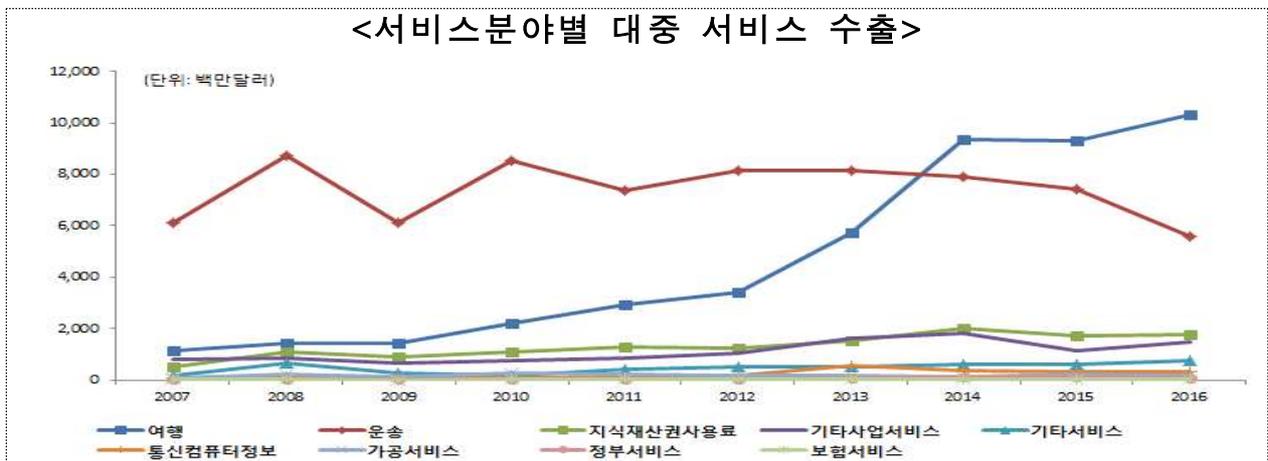
## □ 서비스무역 세계 2위

- '17년 중국 서비스무역 규모는 6.8% 증가한 4조 6991억 위안, 세계 2위 규모
    - \* (수출) 1조 5407억 위안, (수입) 3조 1584억 위안, (수지) 1조 6177억 위안 적자
  - 서비스업 육성정책 본격화 후 서비스 수입 급증, 전체 무역규모 확대 견인
    - \* 중국 서비스무역 규모 세계 순위 : ('07년) 6위 → ('12년) 3위 → ('13년~) 2위
  - 중국정부는 서비스무역 발전목표 설정, 시범지역 지정, 중점분야 육성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
    - \* 서비스무역 발전목표 : 2020년 서비스무역액 1조 달러 달성, 서비스업 개방 확대 등
- \* <서비스무역발전 13·5 계획> 12개 중점 육성분야 : ①물류·운송 ②여행 ③건축 및 엔지니어링 ④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⑤에너지 ⑥금융 ⑦정보통신 ⑧기술 ⑨지적재산권 ⑩비즈니스 ⑪개인·문화·오락 ⑫ 국제 서비스아웃소싱
- 자유무역시험구(11개)의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도입에 따라 주요 서비스업종 대외개방
    - \* '17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7차 개정안 발표, 서비스업을 첨단제조업과 함께 중국 경제발전을 위한 중점분야로 인식, 최초로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 나. 한국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현황 및 문제점

### □ 對中 서비스 수출은 증가세나 투자진출은 담보

- 우리의 대중 서비스 수출은 '12년부터 빠르게 증가, 흑자 유지
  - '16년 대중 서비스 수출은 206억 달러, 서비스 수입은 160억 달러 기록



- 여행(중국관광객 유치), 운송, 지적권사용료 등 분야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여행 분야는 전체 대중 서비스 수출의 50%(16년)를 차지

\* '17년 시드 등 요인으로 중국관광객 급감시 서비스 무역수지 역시 급감 예상('17년 통계 미발표)

○ 서비스업의 대중 투자진출은 최근 10년간 지지부진

- '17년 대중 투자진출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은 각각 71.9%와 27.5%로 제조업이 대다수를 차지
- 중국 전체 외자유치의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이 각각 24.6%, 69.8%인 것과 대조적



□ 여전히 낮은 개방수준, 차별적 대우 등으로 시장진출 애로

○ 중국의 대한국 서비스 개방수준이 낮아 제조업 중심의 투자구조 지속

- 서비스 분야의 대중투자는 상당부분 홍콩으로 우회해 진행

\* '17년 홍콩의 대중투자액은 989억 달러로 중국 전체 외자유치규모의 75.5% 차지

\* 홍콩은 CEPA로 다수 서비스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 개방(160개 분야 중 153개 개방)

\* 對호주의 경우 병원(독자가능), R&D, 공항운영 서비스 추가개방

- 서비스업 진출 업종도 소규모 도소매 및 요식업이 대부분

○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기업은 시장진입, 경영 등에 있어 다양한 애로 호소

<서비스 시장 진출 관련 기업 애로사항>

- (진입제한) 진입자체 및 지분율 등을 제한(법률, 관광, 의료, 유통 등)
- (실적요구) 신규진출기업에 대해 중국 내 실적 요구(프랜차이즈 등)
- (차별적대우) 심사지연, 까다로운 법 집행, 한도부과(문화콘텐츠 등)
- (지재권침해) 형식적인 지적권 보호, 유사상표 사전등록 등

## 다. 한중 FTA 서비스·무역 후속협상과 기회

### □ 한중 FTA 서비스분야 개방현황

#### ○ DDA 플러스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

- 발효 2년내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해 네거티브 방식 시장개방 약속  
<한중 FTA상 중국의 서비스 양허 주요 내용>

분 야	반영 내용
법률	- 중국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은 중국 로펌과 공동 사업 가능(상하이 FTZ 한정)
엔지니어링	- 중국내 한국기업 면허등급 판정시 한국 등 외국에서 달성된 실적 인정
건설	- 중국내 한국기업 면허등급 판정시 한국 등 외국에서 달성된 실적 인정 - 상하이 FTZ내 설립된 한국 건설기업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 비율 요건(외국투자 50% 이상) 제한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 수주 가능
환경	- 폐수, 고형폐기물 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 허용
유통	- 중국 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소매유통업체의 책 판매 허용
엔터테인먼트	- 공연중개 및 공연장 사업 분야 49%지분 한국기업 허용

- 그러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타 FTA 대비 낮은 개방폭으로 한중 FTA 체결 후에도 우리 서비스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은 여전히 답보상태  
<한중 FTA 양허내용 기준 우리기업의 주요 진출 제한 사항>

분 야	한중 FTA 조항
지분제한	- (극장) “외자 투자는 49%를 초과하지 아니함” - (엔터테인먼트) “합작기업 한국지분 49% 이하, 합작투자 기업의 중국 당사자 의사결정권 보유” - (항공기 보수 및 유지) “합작기업 허용하나 중국측 지배주 소유나 지배적 위치여야 함” 등
경제수요조사 단서	- (의료) “중국 수요에 따른 양적 제한 조건으로~” - (시장조사,인력알선, 여객운송 등) ENT 규정, 구체설명 없음 등 *ENT(Economic Needs Tests) : 외자기업의 중국시장 진입 및 투자설립을 허용하되 경제적 수요가 있는지 조사 후 허가여부를 결정, 사실상 시장접근 제한규정
시장접근제한	- (건설) 외자독자 입찰가능 분야 5가지로 제한 - (여행) 인바운드 서비스만 가능, 아웃바운드 영업 불가 등

□ **한중 FTA 활용, 후속협상이 중요**

- 한중 양국은 '17.12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18.3월 제 1차 후속협상 개최

\* 한중 FTA 2단계 협상은 ①네거티브방식으로 양측의 서비스무역·투자 자유화 수준을 제고할 것, ②양측은 빠른 시일 내 2단계 협상을 마무리해 양국 경제무역 협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중국상무부 高峰 대변인, '18.5.24)

-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시장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 유도 필요
  - 후속협상 결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에 있어 중요한 기초 틀로서 작용 전망
- 서비스 개방폭이 높은 중-홍콩 CEPA 협정 등을 참고할 필요
  - CEPA는 10년간 보충협정을 통해 업종별 개방폭을 점진 확대하고, 광동협정을 체결해 광동성에 시험적으로 개방 후 전국으로 확대

체결시기	협정	서비스 분야 주요 내용	개방방식
'13.6월	CEPA	- 총 18개 분야 개방	포지티브
'04~'13년	보충협정	- 10년간 매년 1회 총 10회 보충협정 추진 - 48개 분야에 대해 403개 개방조치 합의	포지티브
'14년	광동협정	- 광동성지역에 한해 160개 분야 중 153개 개방, 그중 134개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제한조치 132개	네거티브
'15년	서비스 무역협정	- 네거티브리스트 적용 전국으로 확대 - 네거티브리스트 포함 제한조치 120개로 감소	네거티브
'17년	투자·경제 기술협정	- 투자진입 범위확대, 보호강화 - 경제기술협력 내용 통합, 분석 분류 전면추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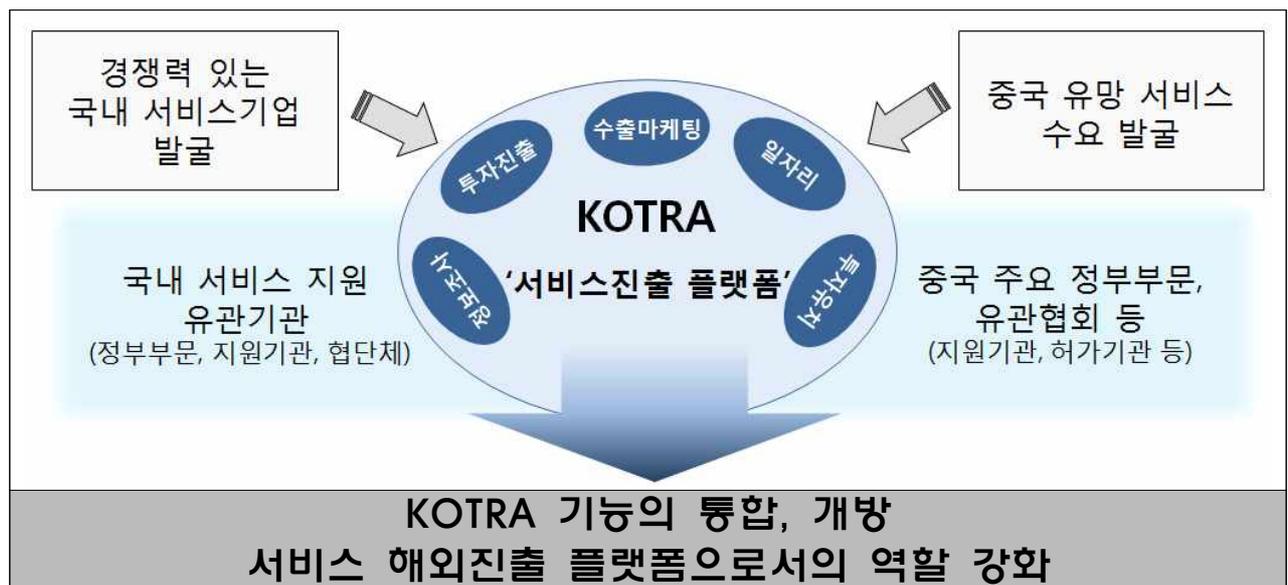
- 업종별로는 서비스 무역 기여도가 높은 관광분야와 우리기업의 진출 수요가 많고 잠재력이 큰 분야부터 개방될 수 있도록 추진
- 자유무역시험구, 한중산업단지 등을 한중 서비스자유화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점진적인 지역 확대방식도 검토 필요

## 라.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전략

### □ 진출전략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질적 / 양적 수준 제고	
구분	진출 전략
분야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가치 전문서비스업 진출 확대</li> <li>▲ 한류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 진출 지원 강화</li> </ul>
지역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진행 속도가 빠른 자유무역시험구 우선 진출</li> <li>▲ 한중산업단지 및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시범도시 활용</li> </ul>
진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투자진출(+창업), 투자유치 등 융복합 진출</li> <li>▲ 현지 경영리스크 관리 지원 강화</li> </ul>

### □ KOTRA 사업 추진 방향



- (정부협상지원) 정부의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 지원
  - CEPA 서비스협상 사례 및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확대 정책 분석 강화
  - 우리 서비스기업의 진출애로 및 요청사항을 파악해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후속협상에 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 (기반마련) 내·외부 협력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플랫폼 구축
  - 서비스 분야별 유관기관(정부, 지원기관, 협회 등)과 공동 진출전략 수립
  - 중국 현지 서비스산업 전문가 풀 확보(분야별, 기능별)
- (시장진입) 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 강화
  - 포럼, 로드쇼 등을 통한 서비스 협력 프로젝트 발굴
    - \* K-라이센싱 로드쇼('18.11월/광저우) : 한중 FTA 후속협상 개시 등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기회 활용, 라이선싱 기반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 분야 : 캐릭터(파생상품 포함), 교육, 프랜차이즈, 콘텐츠, 기술거래 등
      - 협업 : 광저우총영사관, 저작권위원회, 에듀테크협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 진출 계획단계부터 컨설팅 및 밀착지원 추진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 \* 허가·규제사항 파악 및 입지선정, 자금조달, 법인설립 등 초기단계 준비사항 지원
      - \* 병원진출 지원사례(J사) : ①중국파트너 발굴('16년) ②CEPA 활용 위한 홍콩법인 설립('16.12월) ③중국시장조사 및 입지결정('17년) ③ 병원부지 확보 단계(진행중)
- (확대발전) 경영안정화 및 현지 시장진출 확대 지원
  - 세무, 노무, 지적권, 규제 등 경영 리스크 관리(투자기업지원센터 활용)
  - 중간관리직 등 전문인력 수요에 대해 해외취업 연계 지원

## 마. 토론 주제

- 현 상황에서의 서비스시장 진출 확대 방안
  - 유망기업 선정 및 밀착지원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 \* 타당성조사 → 사업모델 현지화 → 운영시스템구축 → 서비스런칭까지 밀착지원
  - 개방도가 높은 CEPA 활용을 위한 홍콩 우회진출 지원
-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고도화 방안
  - 국내 서비스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
    - \* 8대 해외진출 유망분야 : 한류콘텐츠, 교육, 의료, 물류, SW, 관광, 금융, 지적권
  - 자유무역시험구 및 한중산업단지 등 특화구역을 통한 시장 접근성 제고
-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서비스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서비스 분야별로 진출방식이 다르고 각각의 전문성이 매우 높음.
  - 단순 수출지원을 넘어선 중장기 프로젝트로서 융복합 지원 필요

**IV**

**중국 4차 산업혁명 연계 협력 및 진출방안**

# 1

## 중국의 4차산업 육성과 한-중 미래협력 방안

(발제 : 항저우무역관)

### 가

#### 중국의 4차산업 육성 전략과 현황

##### □ 4차 산업 7대 키워드와 중국의 오늘

“중국이 4차산업 혁명을 이끌고 있다” 다보스경제포럼 클라우드 슈밥 의장

생산자와 소비자 직소통	B2C온라인 확대, 온오프유통융합, EWTP 주창 *CBT 80.6% ↑, 전자상거래 11.6% ↑
스마트 팩토리로 진화	로봇과 IoT 도입 확대, 최대 로봇시장
실감형 콘텐츠 기반 교육훈련	원격지 온라인교육, VR체험장
당일 배송을 위한 하이브리드 물류	차이나오(AI물류), 드론 배송, 허마센싱(신유통) *택배 연 400억 6,000만건(70% 전자상거래)
지능형 교통운송시스템	공유자동차, 공유자전거, 신재생자동차, 알리클라우드 교통개선시스템
빅데이터와 AI전쟁	구이저우 빅데이터거래소, BAT출자 AI R&D센터
서비스 융합	AI원격진료(1억명), O2O전시판매, 무인점포, 소규모 대중창업 *플랫폼경제 확산

##### □ 중국 정부의 중장기 전략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해 민-관-학 협력 혁신창업생태계의 조성

☞ 결국, 디지털경제의 선점을 통해 글로벌 경제대국 도약이 목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등장이 후발자에게 엄청난 기회가 됨을 정확히 이해

○ 2050년, ICT산업 경쟁력 세계 1위 지향

-4차산업 핵심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에 의해 중국 ICT산업 급속 진화

- \* 중국의 IT서비스, SW 성장세가 타산업 대비 빠른 속도로 확대 전망 (ITTP, 2015)
- \* 2020년, 중국 제조업 경쟁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전망 (딜로이트)

□ 육성 현황과 주요 적용사례

○ 육성 현황

제조 2025로 제조업 혁신, 인터넷+로 서비스 혁신하면서 지속적 상호연결 (정책 환경) 과감한 정책 이니셔티브와 민관학의 전방위 참여 창업환경 조성 (사업 환경) 산업 및 지역간 이중융합 장려, 융복합생태계 조성 (투자 환경) 과감한 투자합작, 스타트업 지원 통해 기술력 견인

정책	목표	육성 방향	전략 산업
제조 2025	제조업 혁신	제조업 기초 역량 혁신 제조업 국제화 수준 제고 IT기술+제조업 융합 친환경 제조업	고정밀 수치제어, 로봇 차세대 IT기술,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 및 전력설비 신에너지차, 스마트농업 바이오헬스케어, 신소재
		<b>※ 우리의 기회</b> - 중국 산업용 로봇 교체 프로젝트, 전기차 보조금 지급 - 첨단전력 설비, 스마트 팩토리 구축	
인터넷 +	서비스업 혁신	(인터넷 +) 창업/ 농업/ 금융/ 물류/ 교통/ 교육/ 인공지능/ 전자상거래/ 환경	지능형 교통시스템 (공유경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원격진료, VR점포 하이브리드 물류
		<b>※ 우리의 기회</b>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육성 정책 기반 B2C 온라인 유통 확대 - 블록체인, 의료융합, 핀테크 등 새로운 시장의 공동참여 - 공유차, 공유자전거, “드론” 활용 창업 벤치마킹	

○ 주요 적용사례 : 중국정부가 큰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기업이 참여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b>(국가급 인프라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구이양시에 세계 최초 빅데이터 거래소 설립(130개 인터넷기업 회원)</li> <li>- 구이저우성을 알리바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기반지역으로 선정</li> <li>- BAT 합작으로 인공지능 공동R&amp;D센터 설립</li> </ul>
<b>(성공 사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 수요 및 패턴 데이터를 활용, 도시별 전력공급계획 수립</li> <li>- 정부의 부동산가격 데이터를 통한 거시경제 예측모델 개발</li> <li>- 빅데이터 기반 구매 트래픽 분석 및 광고마케팅 지원</li> <li>- “텐센트” “알리바바” : “시노펙” 간 빅데이터 공유 협력</li> <li>- IT기업 “바이두” + 중신은행 합작 인터넷 은행 설립</li> <li>- 인터넷+AI 안전광산채굴(회족자치구)/AI진료(1억명 이용, 15분내 1차 진단)</li> </ul>

- 사물인터넷(IoT)

<b>(국가급 인프라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천시, IoT 미래형 산업단지 설립 / 충칭시, 국가사물인터넷산업 시범기지 설립</li> </ul>
<b>(성공 사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웨이(HUAWEI) : 산업용 IoT와 스마트시티 확산 주도권</li> <li>- 메이디(MIDEA) : 알리바바와 협력, 스마트홈 가전 플랫폼 구축</li> <li>- 징동(JD.COM) : 스마트 전자제품을 상호 연결하는 스마트홈 에코시스템 구축</li> <li>- 춘위이성(업) : 50만명 공립병원 의사/2억명 환자 연결(3분내 의사 답변)</li> </ul>

- 블록 체인

<b>(국가급 인프라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저우 송안 블록체인 육성펀드(17조원) 조성('18년)</li> <li>- 항저우 블록체인 국가산업단지 설립('18년)</li> </ul>
<b>(성공 사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록체인상품 개발플랫폼 개발 및 관련 창업 급속 확대중</li> <li>- 금융,기록(채권,LC)/운송(이동경로,해외정품)/안전 및 추적(식품,수산물)</li> <li>- 티베트 자치구 등 빈곤퇴치자금 용자에 활용</li> <li>- 중국 및 세계 블록체인 표준제정 움직임 가속화 : 선도업체를 정부 지정</li> <li>- 블록체인 개발인력 유치 지원 : 1인 정착금 5억원 및 연구개발비용 10억원 등</li> </ul>

□ 한·중 비교 우위

- (한국) ICT 인프라 제조 분야의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일반 평가
  - 그러나 2010년 이후 ICT 산업의 글로벌 성장축은 제조 분야에서 IT서비스 분야로 빠르게 이동 중

※ 혁신성장동력 육성 시행계획 발표 (미래성장동력 특위, 2018.5.29.)

- AI, 로봇, 스마트시티 등 13개 혁신 성장 동력 분야에 22년까지 9조 투입
- '17년 13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성장 동력 분야를 선정한 바 있음
  - \* 스마트시티, 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 \* 지능형 로봇, 드론, 차세대 통신, 첨단 소재, 지능형 반도체, 인공지능 등

○ (중국) ICT 서비스 분야 강세

- 온라인 유통, 스마트 물류, 금융, 공유 경제 등 서비스 분야 비교 우위
- 모바일 APP 관련 데이터 저장, 전송, 검색 등 분야에 경쟁력이 높음
- 모든 산업이 S/W를 통하여 재편되고 있음(코딩과 디자인의 중요성)
  - \* ICT서비스분야의 국별 세계R&D 투자비중('03-'12) : 중국 35%, 한국 3.3%

※ 2018년 양회에서 경제사회 분야 10대 중점업무 발표

- 공급측 구조 개혁과 신성장동력 육성 강조
-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융합발전을 위한 인터넷+정책 강조

□ 한·중 협력 방안

√ 2017.12 대통령 중국 국민방문

- ☞ 신분야 협력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지향적 협력을 정부간 합의
-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 독일(제조기술), 이스라엘(혁신기술)과 협력 가능성 높아, 한국정부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방향을 선제적개발 제안 필요

## 협력 방안

- ① (글로벌협업 강화)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분야 협업
- ② (협업플랫폼 구축) 4차산업 견인을 위한 양국 공동협력수요 개발
- ③ (상대강점 지원) 세계를 상대로 한 강점분야의 윈윈형 상호 지원
- ④ (일대일로 참여) AIIB의 ICT 인프라 프로젝트 적극 참여
- ⑤ (권역별 특화) 중국 권역별 특화산업 지정 및 장기지원사업 발굴

### ○ (글로벌협업 강화) 중국기업과의 글로벌협업 필요

-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중국 ICT 핵심육성분야의 양국간 글로벌 협업프로젝트 발굴(정부 주도 필요)
- 글로벌시장을 타겟으로 중국 주도로 진행되는 중국 강점분야 국제 표준 구축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됨
- 중국 빅데이터 기업과 합작 또는 M&A 추진 등 필요
- \* 구이양 빅데이터 거래소 회원사 등록(오픈 플랫폼 데이터 구매 등)

### ○ (협업플랫폼 구축)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상시 협업 생태계 마련

- 양국 협업의 기반인 비효율적인 국내 규제의 정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환경 개선 필요
- \* 中 창업유망분야인 공유경제, 의료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규제 약함. 그러나 한국은 공유차량(운수사업), 모바일결제(보안), 의약품전자상거래(의료법) 등 규제 다수
- 한중간 아이콘 대표협업을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실현할 수 있는 국가주도 협업플랫폼 구축(데이터 교환 및 창업기회 발굴 등)
- 양국의 협력 수요기업 DB 축적 및 상시 매칭채널 구축
- \* 양국 기업 설문조사 결과, 희망 협력 분야로 SW개발 및 시스템통합(SI)이 다수

### ○ (상대강점 지원) 산업 우열위 분석과 벤치마킹 지원을 통한 상호강점의 강화

- 전자상거래, 모바일결제, 공유 경제 등 한국이 비교 열위인 기술 분야는 중국의 선진 시스템과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 하여 경쟁력 강화, 제3국 진출 기회 발굴

- 반면, 바이오 제약, 스마트농업,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구현 기술 등 비교 우위 분야는 중국 로컬기업과 제휴를 확대하여 중국시장 GVC 참여

○ (일대일로 참여) AIIB의 ICT 프로젝트 진출기회 적극 참여

- 중국 중서부 및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ICT 서비스, 스마트인프라 ICT 융합서비스 구축 등에 참가기회 모색

○ (권역별 시장 분석) 지역별 4차 산업혁명 협력유망분야 로드맵 제작



- 화북 (베이징, 톈진, 정저우) : 빅데이터, AI, 반도체
- 화동(상하이, 항저우, 난징) : 핀테크, 블록체인, 스마트물류, 로봇
- 화남(광저우, 선전) :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드론
- 서부(청두, 충칭, 시안) : 클라우드컴퓨팅, 항공우주, 원격의료

□ 2018년 무역관별 편성사업 리스트 (\*4차 산업혁명 유관)

권역	무역관	전략 분야	사업명
화동	항저우	크로스보더(CBT) 전자상거래	Kaola.com 한국관 입점 지원 사업
			(홈쇼핑-온라인 융합) 절강홈쇼핑 판촉전
			이우/닝보/항저우 한국관 연계 O2O 전시판촉전
		로봇	Korea Robotics Center 연계 로봇 로드쇼
	스타트업	항저우 창업타운 연계 Korean startup day	
	항저우 상하이	신에너지 자동차	중국 미래자동차 (GEELY) GP 상담회
	상하이	전자상거래	티몰 온라인 플랫폼 O2O 판촉전
		신에너지, 스타트업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KAPP기업 상담회
	난징	신에너지 자동차	FMC 전기차부품 진출지원사업
		IoT, 빅데이터	한중 스마트제조 콜라보 플라자
		로봇	쿤산 로봇 파트너링 상담회
		스타트업	한중 하이테크 스타트업 파트너십
화북	베이징	빅데이터, 스타트업	BAT Korean Startup Week
		로봇	한중 로봇산업 Strategic Alliance
	톈진	항공우주	2018 한-톈진 항공 파트너십
화남	선전	IoT, 모바일	글로벌 파트너링 모바일 Shenzhen
		ICT 전반	K-Global China 2018
		로봇	한-중 로봇 산업 로드쇼
		인공지능,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 투자유치 상담회
	광저우	로봇	한-중 로봇 산업 GP 상담회
서부	충칭	신에너지 자동차	창안 포드 Korea Autoparts Week
	청두	로봇, AR, VR	K-ICT 혁신기술 무역투자 상담회
	시안	로봇, 스마트제조	산업용 로봇 핀포인트 상담회

## □ 항저우(신규 추진 필요)

\* 4차 산업 특히, IT서비스산업 진출은 혁신 창업생태계 진입이 불가피

### 1) 중국 4차 혁신산업 벤치마킹연수단

- 기간,장소 : '18년 하반기, 항저우
- 참가기업 : 60개사 이상(총 3회)
- 협업기관 : 코트라아카데미,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벤처대학원
- 현지연수 전문기관을 확장외연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연수방향을 무역관이 측면 코칭해 주는 형태

'18년 상반기 : 능률협회, 서강대, 계명대, 포스코 등 중국혁신사업 연수단 간접 지원

'18년 하반기 : 항저우 디지털생태계 벤치마킹 연수단 지원수요 다대

### 2) 국내스타트업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포럼(지역본부사업)

- 기간,장소 : '18년 9월 , 코트라 본사 대회의실
- 참가기업 : 중국 4차산업시장 진출 희망하는 국내스타트업 및 중소혁신기업
- 현지 기업 : 중국공동창업벤처지원기관, 주요 분야별 엑셀러레이터 등
- 내 용 : (1부)투자방향 발표 (2부)1:1 컨설팅 상담 및 Q&A

### 3) 한·중 공동 창업공간(Co-Founding Office, 인큐베이터) 조성

- 기간,장소 : '18년 하반기, 항저우(공유사무실)
  - \* 항저우를 해외창업지원센터로 지정
- 참가기업 : 20개사(본투글로벌 공동 및 단독창업 유망기업)
  - \* 한국기관 주관 단체입주, 개별 입주 등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고 현지 로컬 창업공간(예 : 항저우드림타운) 개별 입주도 알선
- 협업기관 : 국내스타트업 해외창업지원기관(예산, 입주기업 유치)
  - 입주 유치와 공동창업 방향을 무역관이 측면 지원하는 형태

- 목적 : 공동창업파트너 발굴, 상륙거점 확보 및 비용 절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항저우드림창업타운 공동창업 협력

SBA-항저우 문화창의산업단지간 공동인큐베이팅공간

한국표준협회-알리바바간 온라인몰 운영상 육성 등 현지진출 거점 조성에 관심(협의중)

#### 4) 공동 창업 및 기술 협력 1:1 매칭상담회(K-Startup in China)

- 기간, 장소 : '18년 하반기, 항저우 드림타운
- 목적 : 한국창업센터와 현지창업단지 교류를 통한 공동창업 촉진행사
  - 비즈니스 모델 현지화(변형) 통한 기회 창출형 창업
  - 사업 다각화 희망 현지기업과 합작 창업
- 배경 : 해외수요의 정확한 발굴이 해외창업 성공의 선결 요건

□ 중국 “인터넷+” 추진 로드맵

<b>목표</b>	인터넷 + 전통산업의 융합	⇒	ICT 기반 서비스 강국
<b>중국 인터넷+</b>	<b>특징</b>	<b>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산업 新성장 동력 구축</b> [핵심 비전] 산업구조 전환, 중소기업 융복합화, 생산공정 스마트화, ICT기반 생활환경	
	<b>11대 추진 분야</b>	① 인터넷+창업혁신 ② 인터넷+협동제조 ③ 인터넷+현대농업 ④ 인터넷+스마트에너지 ⑤ 인터넷+금융혜택 ⑥ 인터넷+서비스 ⑦ 인터넷+물류 ⑧ 인터넷+전자상거래 ⑨ 인터넷+교통 ⑩ 인터넷+녹색생태 ⑪ 인터넷+인공지능	
	<b>10대 중점 업무</b>	① 개방형 창업공간 ② 스마트로봇 등 제어시스템 ③ 농산품 안전 시스템 ④ 스마트그리드 ⑤ 인터넷 금융플랫폼 ⑥ 환경 빅데이터 ⑦ 스마트 운송시스템 ⑧ 국경 간 전자상거래 ⑨ 에너지의료 등 전자상거래 범위 확장 ⑩ 정부 데이터 개방 플랫폼	

○ (4대 중점 액션플랜) '15년 중국 상무부 분야별 구체적인 조치 방안 발표

<b>4대 중점 액션플랜</b>	<b>인터넷+ 인프라건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유통 정책 연구 및 인프라 건설</li> <li>■ 모바일, 물류 배송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li> <li>■ 전자상거래 및 물류 시험기지 건설</li> <li>■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통계 및 감독 시스템 구축</li> <li>■ 상표권, 지재권 보호 시스템 구축</li> </ul>
	<b>인터넷+ 창의경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형 전자상거래 응용 확대</li> <li>■ 전통 유통 기업의 O2O 융합 판매루트 다변화</li> </ul>
	<b>인터넷+ 창업육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 혁신·창업'(大衆創新,萬重創業) 홍보 강화</li> <li>■ 전자상거래 전문 인력 육성</li> </ul>
	<b>인터넷+ 정책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비즈니스 보호규정" 입법 추진</li> <li>■ APEC, 한·중·일, BRICs 등 국제 경험 확대</li> <li>■ 국경간(국제) 전자상거래 정책적 발전 지원</li> </ul>

## □ 중국의 실리콘밸리 “항저우”

- 2015년 초부터 선도적으로 ‘인재 유치 정책 27조’ 발표
- 2017년 기준 인재 순유입량 최대치 기록(항저우>선전>청두)
  - \* 협단체 5,473개, 첨단 기술 기업 291개사 입주, 12,585명 창업자 배출(‘17년)
- 저장성 소재 전문산업단지 79개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단지]

인터넷창업타운, 모바일인터넷타운, 클라우드컴퓨팅타운, 엔젤투자타운, 전자상거래 센터, IoT센터, 클라우드컴퓨팅센터, 빅데이터 산업 센터, 인터넷 금융혁신센터, 스마트 물류센터, 자동화 로봇기술센터 등

- 창업인큐베이터 40개 (국가급 인큐베이터 4개 : 중국 전체의 20%)

## [창업 전문 단지]

- 멍상샤오전(夢想小鎮) 향후 3년 내 대학생 창업자 1만명
- 원치샤오전(云栖小鎮) 향후 3~5년간 1,000개의 관련기업 배출
- 푸디창업원(福地創業園) 전자상거래, 모바일인터넷, 게임 등 분야 → 모구지에(蘑菇街), 콰이디다차(快的打車), 와차이(挖財) 등의 스타트업 성공사례
- 형성과기원(恒生科技园) 입주기업에 교육, 금융, 법률서비스 제공 → 전자상거래, IoT, 인터넷금융, 공업디자인, 문화창의, OEM 등 다양한 분야. 창업대회 주관

- 외국인 창업 취업 활성화

- VR콘텐츠(카)의 항저우드림타운 R&D 중외합자회사 설립
- Rozemerie Cuevas(카)의 항저우위향 패션회사 설립
- 저장성 자싱시 초콜릿 타운 “거페이 초콜릿타운 외국인 부사장 취업

(발제 : 난징무역관)

## 가. 중국 산업 고도화 동향

### □ ‘중국제조 2025’ 개요

-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정책을 통해 제조 ‘대국’에서 ‘강국’으로 도약을 추진 중
  - \* 제조업 전반 체질전환 목표, IT기술과 제조업 융합 지향, 독일 인더스트리 4.0 벤치마킹
  - \* 차세대 정보기술, 항공우주, 신소재 등 10대 분야 집중 육성(세부 추진현황 ‘첨부 1’ 참조)

⇒ 2025년 독일·일본 수준 도달, 2045년 미국 추월 목표

### □ 추진성과

- (기술 고도화) 적극적 R&D 투자로 독자 기술 개발 가속화
  - \* R&D 규모 1000대 기업 중 한·중기업 수('17) : 25개(한), 100개(중)
  - \* 중국 국내 발명 특허 출원 건수('17) : 138만 2000건(세계 1위)
- (GVC) 부품소재 자급률 상승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 \*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 : 63.9('00) → 53.4('16)
  - \* 반도체(ICT 핵심부품) 자급률 목표(%) : 10('18) → 40('20) → 70('25)
- (경쟁력) 산업·기업 글로벌 경쟁력 지속 향상, 신산업 일부 분야 한국 추월
  - \* '16년 국제 제조업 경쟁력 지수 중국 1위, 한국 5위(딜로이트)
  - \* 포춘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 수 : 12개('00) → 115개('17)
  - \* 한·중 4차 산업혁명 12개 기술 비교 : 우위(5개), 경합(2개), 열위(5개)(세부내역 ‘첨부 2’ 참조)
  - ⇒ 중국 우위 분야 : 블록체인, 인공지능, 우주기술, 3D 프린팅, 드론

###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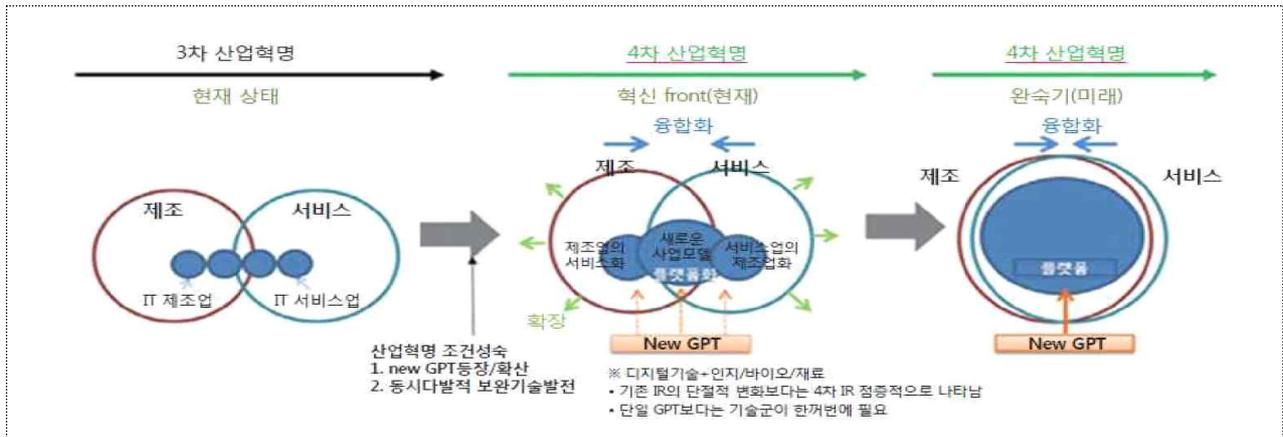
- (기회요인) 고품질 부품·소재 및 첨단기술 글로벌 협력수요 확대
- (위협요인) 중국기업 경쟁력 강화로 산업구조상 한중간 경쟁 심화

## 나. 중국 GP(Global Partnering)사업 개황

### □ 사업여건

- (산업구조)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이 부상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 가속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의 변화양상>



자료원: 산업연구원(2017)

-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혁으로 혁신 스타트업이 빠른 시간 내 업계의 주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특히 중국은 광활한 내수시장과 막강한 투자여력을 보유하고 있어 스타트업 고속 성장세
  - \*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 : 미국 7년, 중국 4년
- (정부·기업) 경쟁력 향상 위한 글로벌 협력 수요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선진국을 중점 협력 대상국으로 간주
  - \* 중-독 공업4.0 표준화 태스크포스, 중-프 공업에너지효율 협력 태스크포스 구축
- (협력방식) 중국 대기업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술·투자 협력 통한 원천기술 습득 희망
  - \* 위에다자동차(전기차) : “생산원가 절감 위해 한국 우수 배터리 기업과 합작 원해”
  - \* 난징철강 : “사업의 고부가가치화 위해 신소재 기업과 기술협력 필요”

## □ 현황과 과제

- (전체) 최근 3년간 거점을 6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총 28개의 상담회를 추진하였고, 총 103개의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 (분야) 자동차부품 중심 구조로, 사업분야 다각화·융복합화 필요
  - \* 자동차(9건) > IT전자(5건) > 기계/플랜트(4건) > 조선·항공 (2건) ('15-'17)
- (형태) 종합 상담회 비중이 높고, 전문적인 단독 상담회 부족
  - \* (GP사업 특징) 1개 기업을 깊이 있게 반복 지원하여 성과 창출 가속화
  - \* 단독상담회 비중 : 30%(3개사, '15년) → 22%(2개사, '16년) → 33%(3개사, '17년)
  - 종합 → 전문·多대多 → 1:1 맞춤형 형태로 점진적 전환 필요
- (방식) 기술협력을 원하는 중국기업과 기술유출을 우려하는 우리 기업의 협력 수요 불일치, 성과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
- (매칭) 중국 대기업은 이미 해당분야 한국 우수기업들과 네트워크 보유, 단순한 매칭을 넘어 KOTRA만의 경쟁력 확보 필요

### <Future Mobility Corporation(BYTON) 구매총감>

“우리는 이미 유력 한국 부품기업 리스트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경쟁력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의 협력은 희망하지 않는다. KOTRA는 우리보다 한국기업과의 네트워크가 강력한가? KOTRA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분야 다각화, 협력대상 확대, 추진방식 고도화

## 다. 실행 전략

<b>목표</b>	<b>韓 중소기업 中 소재부품시장 진출지원 기반 구축</b>		
<b>추진 과제</b>	<b>사업분야</b> ▶ 신산업 GP수요 개발 ▶ 매핑DB 고도화	<b>협력대상</b> ▶ 잠재 글로벌기업 발굴 ▶ 스타트업 집중 공략	<b>프로세스</b> ▶ 민관협력 GP사업 개발 ▶ 맞춤형 제안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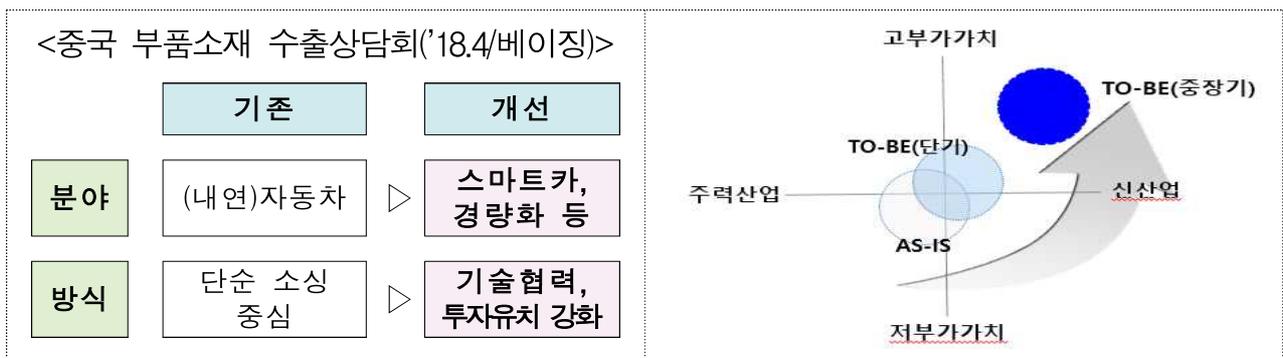
### □ (사업분야) 新舊 사업 TWO-TRACK 전략 추진, '전환기' 대응

○ (Two-Track) 기존 주력사업을 유지하되 산업 구조 전환을 준비

- 올해는 우리 기업이 당장 직면한 경영난 타개를 돕기 위해 내연 기관 자동차 프로젝트도 지속하여 단기 성과를 창출하되,

\* 기아 협력사 간담회('17.11/연청) : “부품업계 경영난 극심...국내 대기업 국한된 거래선 다변화에 국가 차원 지원 절실” → '18년 창안포드 상담회 개최(충청·난징 협업)

- 전기차, 스마트카 등 수년 내 시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는 중장기 유망 신산업 분야 사업 수요도 선제적으로 개발



○ (기업 DB) 신산업·진출기업 정보 확충 및 역량별 세분화

- (신산업) 분야별 기업 DB 확대, 기업별 역량정보(기술·레퍼런스 등) 보완으로 매칭 정확성 제고
- (진출기업) IT·자동차 분야 진출기업 DB 구축, 현지 공장 보유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고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원가절감, 물류편이성)
- \* (창안포드) 충칭 소재 기업 발굴 희망 (FMC) 난징 공장 구축 가능 기업 협력 우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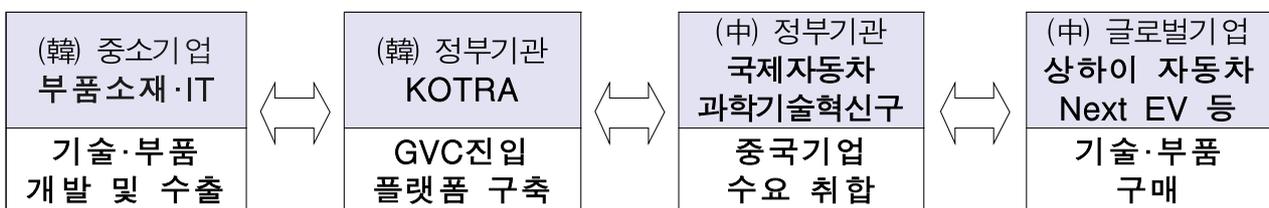
□ (협력대상) '潛龍'스타트업 등 잠재 글로벌 기업으로 타겟 다변화

- 신규 협력 수요가 많고 GVC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잠재 글로벌 기업으로 협력 대상 확대
  - 성숙단계에 진입한 글로벌 기업의 경우 신규수요가 제한적이고 경직적인 공급망을 운영하고 있어 GVC 신규진입이 어려운 반면,
  - 성장단계 기업은 사업 확장 과정에서 신규 공급선 발굴 수요가 높아 우리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다대
    - \* 소프트뱅크는 2000년 알리바바에 2천만 달러 투자, 약 2만 배 수익 창출('17년 말)
  - 특히 전기차 분야는 급성장 중인 스타트업 집중 공략 필요
    - \* 정부·투자가의 전폭적 지원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차세대 주자로 부상
    - \* '17년 中신에너지차 유니콘 기업 : NIO, WM-Motor 등 9개사(기업가치 합계 430억불)
- 글로벌 기업으로 협력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現 GP사업 개념을 수정해 사업구성 및 평가제도 수정

□ (프로세스) '民官협력 방식' 등 중국형 GP사업 개발, 효율성 제고

- (수요발굴) 신산업 분야 공공기관과 지원 플랫폼 구축, 발굴 효율화
  - 중국 대기업 수요발굴을 위해 현장을 직접 뛰더라도 기업에 직접 연락할 경우 담당자 연락처 확보조차 쉽지 않은 것이 중국 내 현실
  - 타겟기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정부기관을 적극 활용, KOTRA의 신뢰도를 극대화하여 접촉 성공률 제고
  - 중국제조 2025 등 정책 수행을 위한 중국 정부의 신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바, 신산업 분야 수요 발굴 등에 적극 활용

<중국 미래자동차 GP사업(상하이, '18.6)>



- (수요대응) 기업별 맞춤형 제안 설계, 적극적 협력 관계 구축
  - 기존 프로세스는 초기 접촉 시 단순 DB제공 지원, 수요 대응 미흡
  - 글로벌기업 수요별 맞춤형 제안서\*를 제공, 중장기 협력관계 심화
    - \* 대외협업체계 구축 : (산업프로필) KDB, 산업연구원 (기업프로필) KDB, 기술보증기금
  - 한·중 산업 간 경쟁력 비교에 입각해 협력 방식 다각화
    - \* (경쟁우위) 소싱(수출)+기술협력+투자유치 (경쟁열위) 기술도입+M&A 등

< GP 사업 프로세스 개선제안 >

주체	기존	개선
무역관	글로벌기업 수요발굴	좌동
본사	잠재 국내기업 정보제공	좌동
본사/무역관	-	기업 맞춤형 중장기 협력 프로포절 제시
글로벌기업	협력희망 국내기업 선정	좌동
본사/무역관	1:1상담지원 (GP 상담회)	좌동
본사/외부협력기관	국내기업 역량강화 지원 (R&D, 품질교육 등)	기술협력, M&A 지원 국내기업 역량강화 지원 (R&D, 품질교육 등)
글로벌/국내기업	성약 발생	좌동
본사/무역관	글로벌기업 사후관리	좌동

< 분야별 추진과제 요약 >

방향	추진과제
사업분야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경량화 소재 등 신산업 신규 수요 선제적 발굴</li> <li>■ 국내기업 DB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으로 수요대응 효율화</li> </ul>
협력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재 글로벌 기업으로 타겟 협력 대상 확대</li> <li>■ 시장변화에 부합하는 사업구성 및 평가제도 개선</li> </ul>
프로세스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신산업 분야 신규 정부 인프라와 네트워크 확충</li> <li>■ 유관기관 협력 플랫폼 활용, 해외수요처 맞춤형 제안서 설계</li> </ul>

□ 개요

목표	제조업 대국 → <b>제조업 강국</b>						
정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border: 2px solid red;">(1단계) 중국제조 2025</td> <td>(2단계) 중국제조 2035</td> <td>(3단계) 중국제조 2049</td> </tr> <tr> <td style="border: 2px solid red;">글로벌 2대 강국 진입 (독일·일본 수준)</td> <td>제조 제1강국(미국) 중간 수준까지 성장</td> <td>제조업 제1강국 진입</td> </tr> </table>	(1단계) 중국제조 2025	(2단계) 중국제조 2035	(3단계) 중국제조 2049	글로벌 2대 강국 진입 (독일·일본 수준)	제조 제1강국(미국) 중간 수준까지 성장	제조업 제1강국 진입
(1단계) 중국제조 2025	(2단계) 중국제조 2035	(3단계) 중국제조 2049					
글로벌 2대 강국 진입 (독일·일본 수준)	제조 제1강국(미국) 중간 수준까지 성장	제조업 제1강국 진입					
중국제조 2025	<p style="text-align: center;"><b>전 산업 체질개선과 전략산업 육성 병행</b></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b>[5대 기본방침]</b></p> <p style="text-align: center;">혁신능력 제고, 품질 개선, 친환경 성장, 산업구조 최적화, 인재 육성</p>						
	<p><b>9대 주요임무</b></p> <p>① 제조업 혁신능력 제고 ② 정보화와 공업화 융합 추진 ③ 공업 기초역량 강화 ④ 품질 강화 브랜드 구축 ⑤ 녹색제조 전면 추진 ⑥ 10대 중점영역 발전 추진 ⑦ 제조업 구조조정 심화 ⑧ 서비스형 제조업 생산형 서비스업 발전 추진 ⑨ 제조업 국제화 발전 수준 향상</p>						
	<p><b>10대 핵심 산업</b></p> <p>① 차세대 정보기술 ② 고급 디지털선반 및 로봇 ③ 항공우주장비 ④ 해양공정장비 및 고기술 선박 ⑤ 선진 궤도교통장비 ⑥ 신에너지자동차 ⑦ 전력장비 ⑧ 농기계장비 ⑨ 신소재 ⑩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p>						

□ 주요 지표 달성 목표

구분	달성목표
혁신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대비 R&amp;D 지출 비중(%) : 0.88('13) → 1.68('25)</li> <li>■ 매출액 1억 위안당 발명특허 수 : 0.36('13) → 1.1('25)</li> </ul>
질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품질 경쟁력 지수* : 83.1('13) → 85.5('25)</li> <li>■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 6.5%('20~'25년 평균)</li> </ul>
IT+제조업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보급률(%) : 37('13) → 82('25)</li> <li>■ 핵심공정 컴퓨터 수치제어 공작기계 비중(%) : 27('13) → 64('25)</li> </ul>
친환경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생산 단위당 에너지 소모 감축비율 : '15년 대비 34% 감축</li> <li>■ 산업생산 단위당 CO2 배출 감축비율 : '15년 대비 40% 감축</li> </ul>

\* 중국 제조업의 수준을 평가한 경제기술 종합지수

## □ 시범도시 구축

### ○ 지역별 행동계획 수립 및 시범도시(군) 구축 개시

- 성시별 지침서('16) 제정으로 중복개발 방지 및 지역별 차별화 발전 도모
- 4개 도시군과 12개 도시를 시범도시(군)으로 지정, 성공사례 창출 노력('18.5월 현재)

< 중국제조 2025 시범지역 >

- 4대 도시군: 쑤난도시군(장쑤), 주장서안도시군(광둥), 창주탄형도시군(후난), 정뤄도시군(허난)
- 12개 도시: 닝보, 취안저우, 창춘, 우한, 우중, 칭다오, 청두, 깐저우, 광저우, 허페이, 후저우



## □ 5대 프로젝트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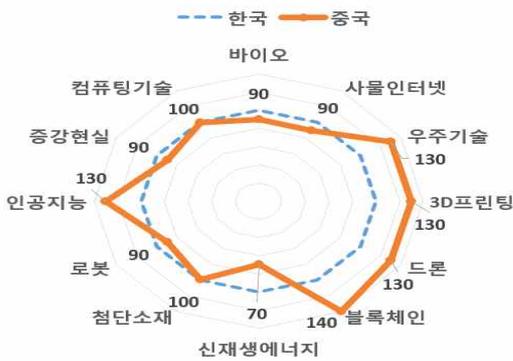
**첨부2**

**주요국 4차산업혁명 12개 기술 경쟁력 비교**(한국경제연구원, '18.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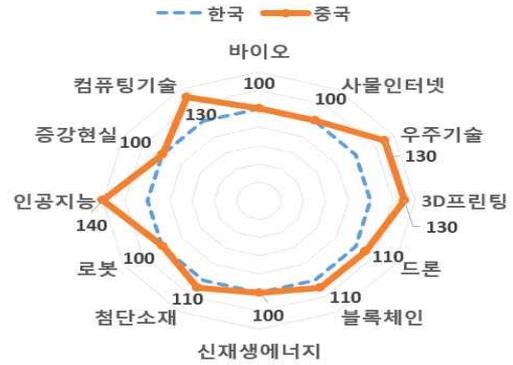
□ 주요국(韓,中,美,日)의 현재 및 5년 후 경쟁력 비교

	한국	중국	미국	일본
2018	100	108	130	117
2023(5년 후)	100	113(+5)	123(-7)	1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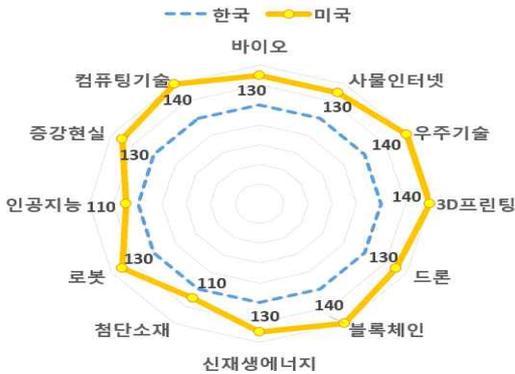
〈한국과 중국의 현재 기술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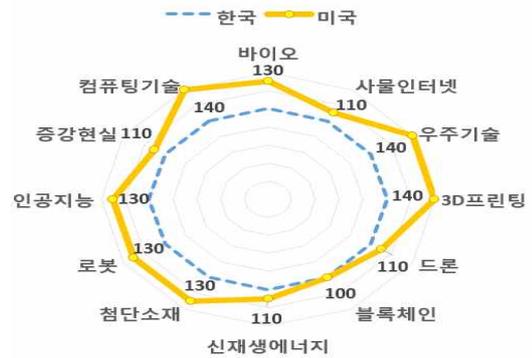
〈한국과 중국의 5년 후 기술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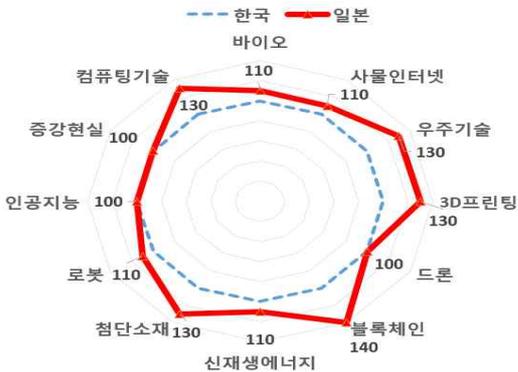
〈한국과 미국의 현재 기술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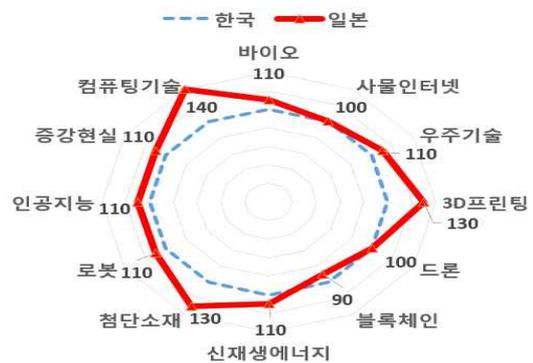
〈한국과 미국의 5년 후 기술격차〉



〈한국과 일본의 현재 기술격차〉



〈한국과 일본의 5년 후 기술격차〉



### 첨부3

### 한중 중점 육성산업 현황표

구분	한국 혁신성장동력 (13개 분야)	중국의 관련 육성업종 (10대 업종)	중복여부
지능화 인프라	빅데이터 	차세대 정보기술	○
	차세대 통신 		○
	인공지능 		○
스마트 이동체	자율주행차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자동차	○
	드론(무인기) 	항공우주장비	○
융합 서비스	맞춤형 헬스케어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
	스마트시티 	-	X
	가상증강현실 	-	X
	지능형로봇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
산업기반	지능형반도체 	차세대 정보기술	○
	첨단소재 	신소재	○
	혁신신약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
	신재생에너지 	전력설비	○
기타	-	농업기계장비	X
	-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X
	-	선진 궤도교통설비	X

\* 자료원 :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2018년 5월)

## 첨부4

## 2020년 주력산업 업종별 한·중 경쟁구조

	대중경쟁우위	경쟁분야
자동차	고급승용차, 엔진 및 변속기 등 핵심부품, 고기능 스마트 핵심부품	소형승용차, 일반 범용부품,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부품
조선	VLCC, PC선, LNG선, LP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대형 엔진·부품, 중대형 컨테이너선 등
일반기계	복합금형 등 제한적 핵심부품	머시닝센터 등 고급 기계류 및 핵심 부품
철강	고기능성 강재, 특수강/합금강	판재류, 강관, 형강 등 일반강재
석유화학	에틸렌계 제품, BTX계열 등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
섬유	고기능성 화섬사, 탄소섬유 프리프레그 등	기능성 가공직물, 합섬원료
음식료	기능성 유제품, 고급 영유아식품	유제품, 면류, 소스류
가전	OLED TV, IoT가전 등	UHD TV, 프리미엄 가전
정보통신기기	플렉서블, 휴대단말용 핵심부품	고급형 스마트폰, 모바일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LCD장비, OLED 패널	고화질 LCD 패널
반도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AP, CIS, DDI	D램, 낸드

\* 자료원: 산업연구원

## 첨부5

## 4차 산업혁명 분야 BAT(Baidu, Alibaba, Tencent) 참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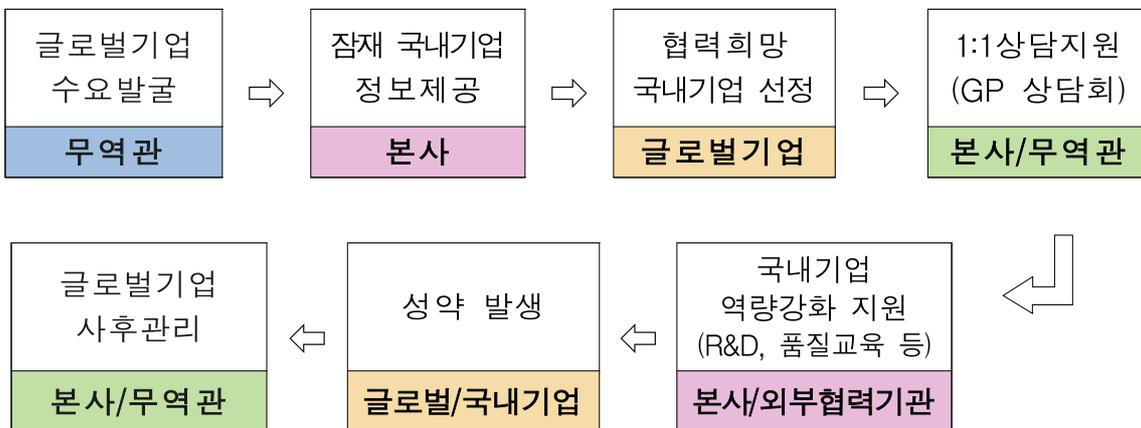
	미래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Baid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두 지도’ 등을 통해 확보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정밀지도 기술 개발</li> <li>• 지리, 창안 등 완성차기업과 협력, 자율주행차 공동 개발 ('18년부터 본격 모델 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실리콘밸리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14)</li> <li>- 연구인력 200명, 이미지, 음성인식, 딥러닝 기술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 포털 빅데이터</li> <li>• ‘클라우드+빅데이터+인공지능 결합으로 모든업계의 인공지능화 추구</li> <li>• 닝보 빅데이터 산업기지 →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li> </ul>
Aliba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핑 모터스에 투자</li> <li>•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반 커넥티드카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과기부와 양자컴퓨터 전문실험실 공동설립</li> <li>→ 구글 알파고와 유사한 인공지능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 전자상거래 빅데이터</li> <li>• 영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li> <li>→ 데이터 기업으로 성장</li> </ul>
Tenc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기관과 연합, 전기차 스타트업 NIO 창립</li> <li>• NIO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중국내 가장 촉망 받는 스타트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컴퓨팅 실험실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 위챗, QQ 빅데이터</li> <li>• 소액대출 ‘웨이리다이’: 빅데이터를 활용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 운영</li> </ul>

- (개념) 해외무역을 통해 발굴된 글로벌 기업 수요를 토대로 적격 국내기업 매칭 및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국내 부품소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 지원

\* 글로벌 기업 : 'Fortune Global 500' 또는 매출액 1억 달러 이상 해외기업

- (지원대상) 글로벌 기업에 수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
- (산업분야) 자동차, 항공, 조선, 기계/중장비/플랜트, IT전기전자, 전력, 소재, 의료바이오 등 부품소재 산업

□ (사업 프로세스)



- (수요발굴) 해외 글로벌 기업의 소상·기술협력 수요 사전 발굴(무역관)
- (수요대응) 산업별 맵핑 DB\* 등을 활용, 적격 국내기업 발굴(본사)
  - \* 맵핑 DB : 주요 부품소재 산업의 체계 및 국내기업 정보
- (상호매칭) 국내외 종합 및 핀포인트 상담회 등 개최(본사/무역관)
- (역량지원) KOTRA 자체 및 협업플랫폼을 통해 국내기업 역량 강화 (R&D, 품질교육, 인증 등) 지원(본사/외부협력기관)
- (성과환류) 수출 창출 및 글로벌 기업 사후관리(본사/무역관)